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_____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봉현

[연구수행자] _____

산업연구원

이동희

구진경

이순학

최은희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1
II.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현황 분석	3
1. 관광산업의 정의 및 분류	3
2. 국내외 관광산업 분류체계 사례	14
3. 국내 관광산업 분류체계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28
4. 관광산업 통계 현황 및 문제점	30
III.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개선방안	38
1. 관광산업의 분류 기준	38
2.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개선방향	51
3. 한국의 관광산업 규모 추정	67
IV.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83
1. 분석방법	83
2.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91
3.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및 전후방연쇄효과	100
4. 내외국인 국내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106
5. 소결	114
V. 정책적 시사점	117
1. 국가 관광통계체계의 정비	117
2. 관광통계의 수집 및 분석체계 개선	119
3. 관광산업총조사의 도입	120
4. 관광위성계정의 도입	121
참고문헌	123

| 표 차례 |

<표 II-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종류	15
<표 II-2> 관광산업특수분류 부문별 범위 및 내용	16
<표 II-3> 관광특성소비상품과 관광핵심활동(관광산업)의 범주	18
<표 II-4> TSA : RMF 2008 및 우리나라 관광상품(안)의 분류	19
<표 II-5> 호주 · 뉴질랜드의 관광상품 분류	23
<표 II-6> 캐나다 · 미국 관광상품 분류	24
<표 II-7> 일본 · 필리핀의 관광상품 분류	25
<표 II-8>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27
<표 II-11> 관광 지출의 유형	32
<표 II-10> 외국인 관광지출 항목 사례	33
<표 II-11> 내국인 관광지출 항목 및 지출액 사례	34
<표 II-12> 관광산업특수분류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비교	35
<표 II-13> 관광산업 주요 통계의 비교	36
<표 III-1> 관광산업 특수 분류 항목별 분석	45
<표 III-2>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	53
<표 III-3> 국제기구별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59
<표 III-4> TSA 표의 구성	61
<표 III-5> 관광산업 수급구조와 추정 방식	68
<표 III-6> 2015년 국내 관광산업 지출 및 총생산 규모 추정	70
<표 III-7> 2015년 내·외국인 국내관광 지출 비교	71
<표 III-8> 관광산업 추정규모 추이	73
<표 III-9> 2015년 국민 국내관광 지출 항목별 금액 및 비중	76
<표 III-10> 내국인의 면세점 매출액 현황	76
<표 III-11> 항목별 추정 방법	81
<표 IV-1> 각종 유발계수의 개념 및 행렬식	85
<표 IV-2> 투입산출표상 관광산업 세분류 및 상품구성	87
<표 IV-3> 투입산출표상 전산업 재분류 및 상품구성	88
<표 IV-4> 2014년 관광지출액	90
<표 IV-5> 품목별 산출액 구성	92
<표 IV-6> 품목별 부가가치액 구성	92

<표 IV-7> 품목별 부가가치율	94
<표 IV-8> 품목별 중간투입률	94
<표 IV-9> 품목별 중간재 국산화율	95
<표 IV-10> 품목별 수입의존도	95
<표 IV-11> 품목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	97
<표 IV-12> 품목별 피용자 수 및 구성비	98
<표 IV-13> 품목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99
<표 IV-14> 생산 및 수입 유발계수(2014년)	101
<표 IV-15> 부가가치 및 소득 유발계수(2014년)	102
<표 IV-16>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2014년)	103
<표 IV-17> 전후방연쇄효과(2014년)	105
<표 IV-18> 국내 관광지출의 생산유발액(2014년)	108
<표 IV-19> 국내 관광지출의 수입유발액(2014년)	109
<표 IV-20> 국내 관광지출의 부가가치유발액(2014년)	110
<표 IV-21> 국내 관광지출의 소득유발액(2014년)	111
<표 IV-22> 국내 관광지출의 취업유발인원(2014년)	112
<표 IV-23> 국내 관광지출의 고용유발인원(2014년)	113
<표 IV-24>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2014년)	114
<표 IV-25> 주요 상품과의 유발승수 비교(2014년)	115

| 그림 차례 |

<그림 II-1> 관광의 형태와 분류	31
<그림 III-1> 내국인 국내여행지출 항목별 비중	38
<그림 III-2> 주요 관광지출 활동과 관련 산업 공급 간의 관계	40
<그림 III-3> 총량배분 방식 개념	57
<그림 III-4> 관광산업의 수급과 통계	68
<그림 IV-1> 투입산출표의 기본 구조	84
<그림 IV-2> 국내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2014년)	116
<그림 V-1> 국가 관광통계체계 정비	118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관광통계가 업종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및 관광객의 입출국 동향 등 단순한 1차적 통계조사 수준에 머물러 관광산업의 전체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관광산업 정책수립과 발전 수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 관광산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부재의 원인은 관광산업 자체의 개념 정의 및 분류를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의 관광산업통계 수집 시스템의 문제가 중첩되기 때문임.
 - 기존의 관광산업 통계분류와 각종 관련 통계조사는 오래전에 구축되어,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관광행태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및 관광산업 통계조사 전반에 관한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적 분류를 설정함으로써 관광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통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규모와 국민경제적 위상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산업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범위 설정 및 분류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관광산업 통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함.

-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분석은 입수 가능한 각종 기존 관광통계로부터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기존의 국민소득계정 등으로부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함.
- 관광산업에 관한 실체 분석 결과는 국민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향후 바람직한 관광산업 통계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함.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우리 관광산업이 양적 확대 정책에서 질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정책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기준과 분류를 정비함으로써 관광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기존의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관광산업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 문제 발생)
-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함.
- 또한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온 관광산업 통계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산업정책 및 학술적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현황 분석

1. 관광산업의 정의 및 분류

(1) 관광산업의 정의와 특성

□ 관광의 사전적 정의

- 관광(觀光)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행위임.
 - 관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영어단어는 sightseeing이지만, 이는 관광이라는 행위 관점에서 보면 tour가 더 적합하며, tourism은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의 관광을 의미함.
- 관광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여행(旅行)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으로 가는 것을 뜻함.
 - 여행은 영어로는 travel, trip, tour, journey 등 여러 단어로 표현
- 여행과 관광은 엄밀하게 보면, 관광이 문물을 구경하거나 유람,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행은 지역 간의 이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친지방문, 업무 등의 목적까지 포함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세계관광기구(WTO), UN에서는 “관광이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가, 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사람의 활동”으로 통계·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
- 관광과 여행은 실생활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혼용하고 있음.

□ 관광산업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의 정의

- 관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연구목적, 시각에 따라 관광의 목적, 기간 또는 거리, 특정 기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함.
 - Leiper(1979)는 “관광이란 여행기간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일상의 거주지를 떠나 자유로이 여행하며 1박 이상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 시스템의 5대 요소는 관광객, 발생지, 교통루트, 목적지, 관광산업이며 이 5대 요소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함.
 - McIntosh(1977)는 관광을 여행자를 유인하고 수송하고 숙박시키며, 그리고 그들의 욕구와 욕망에 영합하는 과학·기술·사업으로 정의
 - Smith(1988)는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사업, 휴식, 여가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산업의 총체
 - Lundberg et al.(1995)에 따르면 “관광은 집을 떠나 있는 여행자와 사업, 그리고 여행을 좀 더 쉽고 즐겁게 해주는데 봉사하는 사람과 사업자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설명
- 이처럼 관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 등의 경제행위 외의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여행하고 돌아오는 행위 또는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즉,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기간, 거리 등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은 위락·여가의 성격이나 목적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목적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관광산업에 관한 통일된 정의는 부재

- 관광산업은 관광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반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경제활동을 공급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임.¹⁾
 - 관광산업은 관광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관광에 대한 정의와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매우 폭넓게 정의될 수 있음.
- 그런데 관광활동은 정주하는 곳을 떠나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여러 가지 관광활동을 하는 자를 관광객이라고 정의하면, 관광객의 활동은 먹고 자거나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생활과 특별히 다르지 않음.
- 이는 관광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음.
 - 특히, 관광산업을 분류하려면 기존의 산업활동에 대한 수요로부터 관광객의 수요와 나머지 일반 수요를 구분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형태와 소비유형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료, 위락, 오락, 쇼핑 등 기존 산업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관광산업의 범위와 정의 등을 산업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움.
- 현재 국제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는 관광과 관련이 높은 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1)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에서의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서의 관광사업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광사업은 다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으로 세분류함.
 - 이들 업종은 동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의 구성 사업체로 동종 유사업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관광기구의 관광산업 정의

-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산업(tourism industry)은 방문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동종의 핵심관광활동에 속하는 사업체의 집단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IRTS 2008 6.15).
 - 핵심관광활동은 관광 핵심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함.
 - 관광핵심상품은 해당상품에 대한 관광 지출이 전체 관광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지출이 해당 경제 내에서 상당한 분을 차지하는 상품을 의미함. (IRTS2008, 5.10)
 - 하지만, 관광산업은 다양한 관광핵심상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상품과 그 상품을 주요 산출물로 삼는 산업 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1:1 대응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 ((IRTS2008, 6.19; 5.11)

□ UN 관련 국제기구의 관광산업 정의

-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ESCAP)는 관광산업을 “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 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호텔 및 숙박(hotels and supplementary accommodations), 음식점(restaurants), 유흥시설(entertainment and attractions), 쇼핑(shopping), 국내교통(domestic transport service), 국제교통(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을 관광산업에 포함
-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관광산업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외래방문객 및 국내여행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 및 상업적인 활동의 총합” 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 관광학계의 관광산업 정의

- 199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구 활성화 초기부터 연구자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윤대순(1992)은 관련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을 통하여 관광의 효용과 효과를 최선으로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사적 조직 활동을 관광산업으로 파악하였음.
 - 정의선(1995)는 관광산업을 국민경제를 구성하면서 관광과 관련된 동종·유사상품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였음.
 - 이영수(2008)는 관광산업을 관광 왕래에 대처하여 이를 수용하고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인간 활동으로 파악함으로써 관광현상과 관련하는 일체의 요소에 조직을 부여한 복합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최근에는 산업부문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융복합화 흐름을 관광산업으로 확대하여 ‘융복합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있음.
- 전통적인 관광산업과 타 산업 분야의 콘텐츠나 자원의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 관광산업을 혁신하거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융합 관광으로 정의²⁾
- 융합관광의 유형을 융합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기능복합, 기술결합, 가치 융합으로 구분하고 이를 산업 유형화함.
- 한국관광정책(2013)에서는 문화, 생태, 의료, 해양, 컨벤션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창조적 융합을 시도하여 관광산업의 구성요소에 창조성과 기술을 융합한 활동의 결과물을 창조융합관광산업으로 정의

UNWTO의 관광통계 국제 권고안(ITS: 2008)

- ‘관광 상품’은 방문한 장소의 특성, 교통수단, 숙박의 종류, 목적지에서의 특정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자연관광, 농장체험, 역사문화적 유적지 방문, 특정 도시 방문, 특정 스포츠 활동, 해변 활동 등과 같이 특정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관광 상품’의 개념은 일반적인 경제 통계에서의 ‘상품’ 개념을 넘어서 특정 여행패키지 및 여행목적지를 거래하는 관광 사업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상품 개념과 관련이 있다(ITS 2008, 3.2). 관광상품은 방문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관광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 관광산업은 특정 관광핵심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직접적으로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든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관광핵심상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호텔 산업은 숙박서비스 이외에 식음료 제공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창조경제시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2013.

□ 관광산업의 특성

- 시대의 변화와 함께 관광의 내용과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그에 따른 관광사업의 특성도 복합성, 입지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등을 내포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여러 관련업종의 사업 주체가 복합적인 사업 내용의 수행으로 구성되며, 이 때 각각의 사업활동은 관광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고유의 존재 의의를 가짐.
 - 사업주체의 복합성: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예를 들어 자연공원의 유지관리 또는 도로의 건설-공공기관, 숙박업 또는 음식점-민간기업
 - 사업내용의 복합성: 관광사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매우 복합적으로 형성(관광자의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연관된 업종: 교통, 숙박, 외식 등)
- 관광산업은 입지여건 즉 관광지의 유형과 기후조건, 관광자원의 우열, 개발추진 상황 및 교통여건 여하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큼.
 -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영적 환경(시장규모, 체재지인가 아닌가, 현지조달이 가능한 재료, 인력공급 측면 등)과 수요의 질 (관광자의 계층, 소비성향 등)에 의존하며, 이 때 경영적 환경과 수요의 질 역시 주어진 입지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음.
- 관광산업은 외부 사정(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요인)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사회적 요인에는 정치 불안, 질병발생, 신변안전 등이 있으며,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불황, 환율, 소득변화 등이 해당되며, 자연적 요인으로 지진, 태

풍, 계절 및 기후변화 등을 예로서 들 수 있음.

- 관광산업은 관광소비에 의한 사업의 이윤만이 아닌, 공익적인 가치 추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사회문화적 측면: 국위선양, 국제문화 교류, 국제친선 증진 등 국제관광과 자국민의 보건향상, 근로의욕 증진, 교양향상 등 국민관광 효과 창출
 - 경제적 측면: 외화획득과 경제발전, 기술협력과 국제무역의 증진 등 국민경제적 차원과 주민의 후생복지 증진, 고용창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효과 등 지역 경제적 차원의 효과 창출

□ 본 연구에서의 관광산업

- 앞에서 국제기구, 국내법, 연구자 등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에서 통일적인 키워드는 관광객+소비+공급의 조합임.
- 관광산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이거나 “관광객이 행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임.
-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을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로 정의함.
 - 균형 수급량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면, 관광산업의 총량은 관광지출의 총량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는 공급측면에서 산업을 바라보는 기존의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다르지 않으며, 관광산업의 세부적인 분류와 통계적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2) 관광산업 분류 관련 이슈

□ 관광산업의 규모 추정의 어려움

-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생산품에 의한 산업분류체계가 어려우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영향 등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관광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는 이미 국민계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산업은 타산업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자체 계정과목을 갖지 못한 경제활동으로 간주됨.
 -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다른 부문의 계정과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므로 관광산업의 실체와 크기가 정확하게 계량화 될 수 없음.

□ 관광산업 통계 생산의 어려움

- “관광산업”에 명확한 분류기준의 설정 한계로 관광관련 산업통계가 국민계정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통계를 분리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광지출 측면에서 관광객의 지출항목에서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분류의 한계로 국민계정과 연계가 제약됨.
-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계정 내에 관광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광산업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 (Tourism Satellite Account: TS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TSA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관광 관련 자료를 폭넓게 조정하는 개념적인 체계로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도구로 개발됨.

□ 관광산업 원천통계의 편차

- 관광지출(관광수요) 측면의 원천 자료인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의한 관광 총수입과 한국은행의 여행수입이 불일치함.
 - 즉, 현행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지출 조사 항목은 관광산업 분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를 관광공급 통계와 연계할 때 통계 자료는 심한 편차 발생
- 관광산업의 분류의 기준에 따라 관광관련 원천자료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자료수집 및 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외국인(혹은 내국인) 관광소비구조 분석 시, ‘외래관광객실태조사’와 한국은행의 여행수입을 분석하고, 인바운드 업체의 지상비 구조를 통해 관광부문의 세부 지출 구조를 집계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집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이강욱, 2015).

□ 산업연관표와 연계 어려움

- 관광지출과 국민계정 중에 하나인 산업연관표 혹은 공급-사용 표 (Supply-Use Table: SUT)와 관광산업분류와 연계시키는데 제약이 있음.
 - 관광산업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광산업을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광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1:1로 대응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 분류와 실제 추정된 관광지출(수요측면) 상품분류와 연계되는 것에 대한 방법 및 타당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분류의 중요성

○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

- 관광산업의 분류기준 및 범위설정은 관광산업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위상제고와 중요성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관광분야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

○ 객관적 통계지표체계 확립과 국제적 비교 가능

- 산업분류체계 내에서 관광생산의 총부가가치와 관광총생산물의 가치 추정을 위한 통계자료의 체계화를 통해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됨.

○ 관광경제구조 분석

-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내에서 관광공급과 수요구조, 관광산업구조, 부문별 투입과 배분구조, 최종수요구성 등 부문별로 세분화된 구조분석이 가능함.
- 아울러 전체 관광생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광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개별 정책 적용 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여행업, 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의 산업연관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산출하는 생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정책적 지원의 규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 관광투자활동의 파급효과 분석

- 관광산업분류체계 내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투자활동이 국내 각 산업부문의 산출,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음.

2. 국내의 관광산업 분류체계 사례

(1) 우리나라 관광산업 분류

□ 산업분류 개요

- 산업분류체계는 대표적으로 표준산업분류, 무역상품분류, 산업연관표가 있으며, 기타 특정한 목적에 따른 분류 등이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UN에서 작성한 국제표준산업(ISIC) 분류방식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분류체계임.
 - 무역관련 분류에는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system: HS)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의 품목분류표(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 MTIC)가 있음.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국민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에 관련된 거래내역을 기록한 종합통계표임.
- 급변하는 산업현상을 하나의 통일된 산업분류체계에서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기타 특정한 산업에 대한 특수분류 사례에는 IT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류체계에는 대표적으로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분류가 있음.
- 양대 분류체계는 관광산업의 공급측면에서 이를 구성하는 세부 업종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분류함.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분류체계는 존재하지만, 해당 분류체계에 의한 관광산업 통계조사는 별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은 사실상 관광사업체 분류에 의한 통계조사임.
-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는 관광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분류에 의한 통계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재분류에 의한 2차적인 통계를 생성해야 함.

□ 관광진흥법상(제3조)의 관광사업의 분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음.
- 관광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으로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설정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표 II-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종류

법 률	관광사업	세 부 업 종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관광산업의 특수분류

- 통계청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비중 증대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분류 항목을 ‘특수목적 산업분류’로 별도 재구성하였음.
 - 특수목적 산업분류의 작성 목적은 분류된 관련 산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할 수 있고, 국내·외 통계간의 비교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
- 관광산업특수분류는 관광사업체의 사업특성에 따라 핵심관광산업, 상호의존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지원산업 등 총 4부분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분류코드의 단위는 3단위~7단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와 연계하여 분류하고 있음.

<표 II-2> 관광산업특수분류 부문별 범위 및 내용

부 분	분류번호 범위	내 용
핵심관광산업	101~108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201~204	관광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301~306	관광 비 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서비스업
관광 지원산업	401~404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공공기관,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

자료: 통계청

(2) 세계관광기구 (UNWTO) 분류 사례

○ 세계관광기구(UNWTO)의 관광산업 분류 권고 기준

- UNWTO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관광수요 및 관광공급에서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관광특성상품 기준 하에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음³⁾
- 관광상품은 관광특성상품과 관광연계상품으로 구분하고, 관광특성상품의 기준은 관광수요 측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지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함.
- 관광연계상품은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이라 할 수 없지만 특정 경제 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상품을 지칭함.
- 'IRTS 2008'의 관광산업 분류 기준은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관광특성상품 및 생산활동의 유형 구분 하에 관광특성활동 (tourism characteristic activity)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사업체를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음.

3) UNWTO (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IRTS 2008

<표 II-3> 관광특성소비상품과 관광핵심활동(관광산업)의 범주

상 품	생산활동(관광산업)
1. 숙박서비스	1. 숙박서비스업
2. 식.음료서비스	2. 식.음료업 (활동)
3. 철도운송 서비스	3. 철도운송업
4. 육상운송 서비스	4. 육상운송업
5. 수상운송 서비스	5. 수상운송업
6. 항공운송 서비스	6. 항공운송업
7. 운송장비대여 서비스	7. 운송장비대여업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업 (활동)
9. 문화서비스	9. 문화서비스업 (활동)
10. 스포츠및오락 서비스	10. 스포츠및오락 서비스업 (활동)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의 거래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업 (활동)

자료: UNWTO(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3) 관광위성계정 (TSA) 작성 관련 분류 사례

□ UNWTO, EUROSTAT, KTSA

○ TSA 작성과 관련된 관광상품 분류는 IRTS 2008에 기반을 둔 TSA:RMF 2008과 유럽연합 관광위성계정이 대표적임.

- TSA:RMF 2008은 COICOP 정의에 따라 가구 소비지출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상품과 비소비상품으로 구분

- 이 중 관광소비 상품은 관광핵심상품, 관광관련 상품, 기타관광상품 등으로 세분화되고, 비소비상품의 하부 범주로 여행 중인 방문객의 귀중품에 대한 지출은 관광상품에 대한 지출로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2010)의 KTSA 작성에서 관광상품의 분류는 TSA:RMF 2008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유엔통계국(UNSD), 유럽통계청(Eurosta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산업의 규모산출을 위한 관광위성계정 권고안 (TSA:RMF 2008)을 제시함.
- TSA:RMF 2008, 유럽연합 TSA와 KTSA를 비교해볼 때 관광핵심 상품은 서로 유사한데 유럽연합에서는 관광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이 관광핵심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징
- 관광관련 상품에서 한국 국가특성을 반영한 관광핵심상품은 식·음료품, 쇼핑상품 등으로 TSA:RMF 2008 관광상품 분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
- 향후 KTSA 작성을 위한 관광상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TSA:RMF 2008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 특화된 관광 상품은 관광핵심 상품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관련 산업으로 새롭게 간주되는 관광사업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관광산업 분류는 주기적으로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음.

<표 II-4> TSA : RMF 2008 및 우리나라 관광상품(안)의 분류

TSA:RMF(2008) 관광상품 분류		유럽연합 관광위성계정 (TSA 2009)	한국 관광위성계정(안) (KTSA)
	소비상품	특별상품	
I. 관광 핵심 상품	1. 방문객 숙박 서비스 1.1. 1.2를 제외한 방문객 을 위한 숙박서비스 1.2 개인소유 휴가별장 유 형과 관련된 숙박서비스	1. 숙박서비스 1.1 호텔과 숙소 서비스 1.2 자기소유의 무료별장 서비스	1. 숙박서비스 1.1 호텔 1.2 콘도 1.3 모텔, 여관 1.4 기타
	2. 음식점 서비스	2. 음식과 음료 제공 서비스	2. 음식점 서비스
	3. 철도운송서비스	3. 승객 운송서비스 3.1 도시간 철도 3.2 도로 3.3 수상 3.4 항공 3.5 지원서비스 3.6 수송장비 렌탈 3.7 유지 및 보수서비스	3. 운수서비스 3.1 철도운수서비스 3.2 도로운수서비스 3.3 항공운수서비스 3.4 수상운수서비스 3.5 기타운수서비스
	4. 도로운송서비스		
	5. 수상운송서비스		
	6. 항공운송서비스		
	7. 운송장비대여서비스		
	8. 여행사와 기타 예약서비스		
	9. 문화서비스	5. 문화서비스 5.1 공연예술 5.2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5. 여행사 서비스
	10. 오락·스포츠 서비스	6. 여가 및 기타 오락서비스 6.1 스포츠 및 여가스포츠 서비스 6.2 기타 놀이 및 오락서비스 7. 이외 다양한 관광서비스 7.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2 기타 재화 렌탈 서비스 7.3 기타 관광 서비스	-
	11. 국가고유 관광핵심 재화	-	-
	12. 국가고유 관광핵심 서비스		
II. 관광 관련 상품	-	유통마진 재화 서비스	6. 식음료품 7. 쇼핑상품 8. 연료
III. 기타 상품 분류	III. 비관광 관련 상품 IV. 비소비상품 1. 귀중품 2. 기타 비 소비상품	III. 비특별상품 1. 유통마진 2. 재화	III. 관광기타상품 9. 기타

자료: 이동수(2012), 관광위성계정(TSA) 작성 방안연구, p.49

□ TSA 작성국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일본·필리핀의 분류 사례

○ 호주·뉴질랜드는 TSA:RMF기준에 따라 관광상품을 관광핵심·관광연계상품·기타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자국 관광특성을 반영하여 관광상품을 분류하고 있는데 알코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을 관광연계상품으로 분류하고 기타 관광상품에 금융서비스와 보험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관광핵심 및 연계상품은 수요측면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소비지출에 기초를 두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카지노와 다른 도박서비스를 관광핵심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광연계상품으로 관광 관련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고 있음.

○ 호주는 2000년에 처음으로 1997-98 호주 관광위성계정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TSA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TSA 작성을 위한 주요 자료로 Bureau of Tourism Research에 의해 조사된 관광객 소비지출 자료 및 호주 관광청의 국민계정 자료 등이 주로 활용됨.

○ 호주의 TSA는 산업연관표를 기본으로 하여 관광객에 의한 지출과 관련 산업의 생산을 통합·일치 시켜 전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임.

- 공급측면에서는 주요 관광 관련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입품의 공급, 세금 등이 기재되며, 수요측면에는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중간소비, 최종소비 및 수출과 주요 투입 요소(고용, 임금 등)가 나 타남.

- 이러한 공급-수요 체계를 사용하므로 호주 관광산업의 총부가가치는 지출, 생산, 소득 측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됨.
 - 하지만, 산업연관표는 48개의 산업, 220여개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TSA 작성을 위해서는 관광관련 상품과 이를 공급하는 사업체에 맞춰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호주 TSA 작성을 위한 자료는 호주 통계국의 경제활동 조사와 산업총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수요측면의 데이터는 관광연구사무소의 조사를 활용
- 이러한 국가차원에서 관광데이터 구축을 통해 자료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시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관광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짐.
- 반면, 뉴질랜드의 TSA는 1995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OECD의 작성 권고안을 기본으로 자국 현실에 맞게 재구성 또는 WTO 지침을 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TSA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5년에 발표된 최초의 뉴질랜드 TSA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2차 자료에만 의존하여 작성되었음.
 - 이후 뉴질랜드의 TSA는 WTO가 권고한 TSA 개발 지침에 의거해 작성되고 있으며 2000년 UN통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
- 뉴질랜드의 TSA는 관광활동 수준과 관광활동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주요 목적이며 관광객의 소비, 숙박 등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임.
- 뉴질랜드의 TSA는 국민계정 NZSNA(New Zealand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재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며 관광활동 변화의 영향 분석이 용이함.

- 미국은 TSA:RMF 2008과 관계없이 관광핵심상품, 관광연계상품, 기타관광상품 등의 구분 없이 관광상품을 분류
 - 특히 교통부문에서 주차, 자동차수리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관광상품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은 관광핵심상품에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의 관광상품 분류와 유사
 - 뉴질랜드가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기타관광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
 - 필리핀은 관광연계상품으로 신용카드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관광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관광상품 분류임.

- 각국의 관광상품 분류 사례를 볼 때 미국을 제외한 각 국은 전반적으로 TSA:RMF 2008 관광상품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자국의 관광특성을 반영하면서 관광상품을 분류하고 있음.
 -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유럽연합, 일본, 필리핀이 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관광핵심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임.
 - 캐나다는 TSA:RMF 2008의 권고안과 유사하게 관광상품을 분류하고 있음.

<표 II-5> 호주·뉴질랜드의 관광상품 분류

호주	뉴질랜드
A. 관광핵심상품	A. 관광핵심상품
숙박 주택의 소유권(별장) 카페, 레스토랑, 테이크 아웃 음식 서비스 클럽, 술집, 주점, 바 철도 수송 택시 운송 기타 도로 교통 항공, 해상 및 기타 운송 자동차 채용(렌트)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 서비스 문화 서비스 카지노와 다른 도박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숙박 서비스 식품 및 음료 제공 서비스 항공 여객 수송 도로 여객 운송 철도 여객 운송 해상 여객 운송 여행사 서비스 자동차 대여 또는 임대
B. 관광연계상품	B. 관광연계상품
자동차 연료 소매 기타 소매 교육과 훈련	소매 판매 :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제품 소매 판매 : 알코올 소매 판매 : 의류 및 신발 소매 판매 : 식품, 음료, 담배, 기타 식료품 소매 판매 : 소매 의약품, 화장품 소매 판매 : 관광 내구 소비재 소매 판매 : 다른 쇼핑 교육 서비스
C. 기타 관광상품	C. 기타 관광상품
-	휴가 주택의 전가 임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타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일반 보험 사회 건강 - 관련 서비스 갬블링 서비스 기타 관광 - 관련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비소비제품	비소비제품

<표 II-6> 캐나다·미국 관광상품 분류

캐나다	미국
A. 관광핵심상품	-
방문객을 위한 숙박 서비스	여행자숙박 시설
식품 및 음료 제공 서비스	식품 및 음료서비스
여객 운송 서비스 -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 -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 -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객 수송 - 운송 장비 임대 서비스	교통 여객항공 운송 - 국내여객항공 운송서비스 - 국제여객항공 운송서비스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다른 모든 교통관련 상품 - 고객 철도운송 서비스 - 여객 해상운송 서비스 - 시외 버스서비스 - 시외 전세버스 서비스 - 지역버스 및 기타운송 서비스 - 택시 서비스
문화 서비스	- 관광과 관광운송 서비스 - 자동차 임대 및 임대 - 다른 차량대여 및 임대 - 자동차수리 서비스 - 주차 - 고속도로 통행료 - 여행배치 및 예약 서비스 - 가솔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국가별 관광 특성 제품	
국가별 관광 특성 서비스	
기타 소비 제품	
B. 관광연계상품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쇼핑 -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 동영상 사진 및 공연 예술 - 관람객 스포츠 - 참가자 스포츠 - 도박 - 다른 모든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C. 기타 관광상품	-
비소비제품	-

<표 II-7> 일본·필리핀의 관광상품 분류

일본	필리핀
A. 관광핵심상품	A. 관광핵심상품
숙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 자신 소유의 별장 서비스 식품 및 음료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도시 철도 - 도로 - 수상 - 항공 - 지원 서비스 - 운송 장비 대여 -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여행사, 투어 오퍼레이터 및 관광 가이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 관광 정보와 관광 가이드 문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예술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서비스 - 기타 오락 및 여가 서비스 기타 관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다른 좋은 임대 - 기타 관광 서비스 	관광 특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를 위한 숙박 서비스 - 음식과 음료 제공 서비스 - 전송 서비스 -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 국가별 관광 특성 상품 (쇼핑) - 기타 (금융 및 보험 활동, 건강과 건강)
B. 관광연계상품	B. 관광연계상품
상품 서비스	신용 카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항공, 호텔, 여행 패키지의 전자 발권; 여행 준비 단계의 온라인 예약) 지도 책과 지도 또는 차트의 다른 책
C. 기타 관광상품	C. 기타 관광상품
상품 서비스	A.2 비 관광 관련 소비 제품
비소비제품	비소비제품 B.1 귀중품

자료: 이충기(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 연구문헌의 관광산업 분류 사례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음.
- 관광산업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는 가능하나 통계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기관에서는 관광산업을 단일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산업연관분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관광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인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등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음.

<표 II-8>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연구자	관광산업 분류
Ruiz(1985)	숙박업, 교통업, 무역·통상, 유흥·레크레이션
Smith(1988)	숙박업, 교통업, 여행서비스업, 음식점업, 레크레이션·오락, 소매점
Heng&Low(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레크레이션, 도소매, 교통통신, 기타 서비스
UN(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쇼핑업, 국내교통업, 국제교통업
Lee(1992)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도로교통, 기타 서비스
교통개발연구원(1992)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한국관광공사(1993)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오락문화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권경상(1994)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Hurley <i>et al</i> (1994)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통업, 기타서비스업
Lee&Kwon(1995)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 쇼핑, 유흥(문화오락서비스)
이충기·박창규(1996)	호텔, 음식점, 교통통신,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카지노
Lee&Kwon(1997)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업, 쇼핑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카지노업
이강욱(1997)	숙박·음식점업, 교통업, 기타운수관련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
한국개발연구원(1998)	도소매, 음식, 숙박
김규호·김사현(1998)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쇼핑업)

3. 국내 관광산업 분류체계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는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관광 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정의 및 범위가 대표적임.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산업을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KSIC분류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 생성을 위한 분류체계로써는 한계가 있음.
 - 첫째,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연계되는 KSIC 항목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그 범위가 다양함.
 - 따라서 전체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년 서비스산업 전 업종을 포괄하는 통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전체 관광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서비스업 총 조사’ 등 관련 서비스 통계조사의 해당 업종을 개별적으로 취합해야 함.
 - 서비스 전 업종에 대한 조사로는 ‘경제총조사’가 있으나 5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짐.
 - 다만, 관광산업의 일부 가령, 관광숙박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도소매업 조사 등 서비스 부분통계를 통해 파악 가능함.
 - 둘째,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KSIC 분류 항목의 해당 통계치(가령, 매출액) 중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지 못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규모를 과대측정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 셋째, 특수분류 상에서 구분되는 분류이지만, 이와 연계된 KSIC 상 분류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광산업의 실체를 명확하기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의 조사 범위를 제공하므로 통계를 생성한다는 점에는 적절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법령 상 명시된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 따라 통계 생성 시 관광문화 확산에 따라 발달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 의료 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관광산업 분류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작성 중이 관광위성계정(이하 TSA)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TSA는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과 국민계정체계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므로, 국제 간 비교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광의 효과 분석에 유용
 -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관광선진국들은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TSA를 발표하며, 자국 관광산업의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의 경우 TSA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과 편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TSA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4. 관광산업 통계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 통계는 관광수요 측면과 관광공급측면에서 생산되는 통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요 측면의 관광산업통계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관광지출 항목과 연계됨
- 공급 측면의 관광산업 통계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자 규모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UNWTO에 의한 관광상품 분류와 일치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계정과의 연계하는데도 제약요인 있음.

(1) 관광수요(지출) 측면의 관광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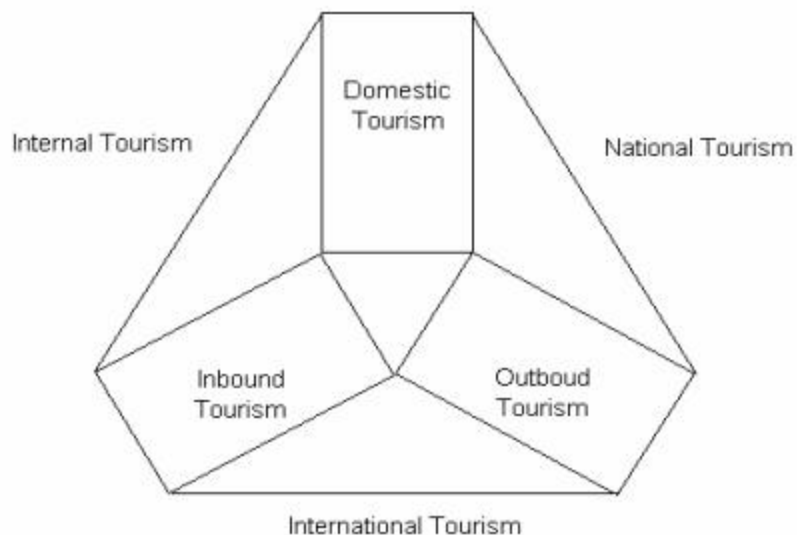
□ 관광지출의 유형별 관광산업 통계 출처

- 관광의 유형이 내국인 국내관광, 내국인 해외관광, 외국인 국내관광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이 관광 지출의 유형도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로 구분됨.
 -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
 -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뜻함.
 -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외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함.

○ 관광 지출의 유형을 관광 지출이 발생한 경제영역 및 경제주체에 따라 ‘국내관광 지출’, ‘국민관광 지출’, ‘국제관광 지출’로 재분류할 수 있음.

- ① 국내관광 지출은 방문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 즉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
 -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활용
- ② 국민관광 지출은 해당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발생시킨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포함.
 -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부록활용
- ③ 국제관광지출은 해당국가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비거주자의 관광지출과 해당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의 관광지출을 의미함.
 - 한국은행 여행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그림 II-1> 관광의 형태와 분류



<표 II-11> 관광 지출의 유형

구분	내용
국내관광지출 Internal tourism expenditure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관광지출 National tourism expenditure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부록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관광지출 International tourism expenditure	한국은행 여행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관광지출 항목별 지출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관광지출구조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지출항목으로 쇼핑비, 숙박비 본인거주국지불경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지출, 문화관련지출, 한국여행사 지불비, 운동관련지출, 기타 비용 등이 관광상품을 구매한 것을 볼 때 공급 측면에서 대응하여 생산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요측면에서의 조사는 조사항목을 미리 설정하고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이 관광산업 분류작성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표 II-10> 외국인 관광지출 항목 사례

단위: US\$

지출 항목	개별 여행객	단체여행객	에어텔여행객
쇼핑비	914.4	1,317.4	627.4
숙박비	363.3	-	-
본인거주국지불경비	-	522.6	422.3
식음료비	241.3	51.6	153.6
교통비	71.0	4.2	38.3
오락관련지출	25.9	5.5	23.6
문화관련지출	7.9	0.9	8.5
한국여행사 지불비	0.8	2.1	0.6
운동관련지출	2.2	0.6	0.1
기타 비용	46.6	3.6	11.8
1인 평균 지출	1,673.4	1,908.4	1,28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 내국인의 국내관광지출은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는 여행객이 구매한 여행 상품에서 여행지출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지출항목 사례를 볼 때 항공비 지출에 대한 항목 등이 제외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보완 조사 필요
- 또한 교통비 항목의 경우 항공, 해운, 철도 등의 세부 항목별로 조사 및 관광상품 분류에서 누락된 부문과 관광연계 상품으로 분류된 부문에 대한 별도 조사도 필요

<표 II-11> 내국인 관광지출 항목 및 지출액 사례

관광지출 항목	지출액(백만 원)	비율 (%)
여행상품구입비(여행사)	914,243	3.6
숙박비	4,393,447	17.3
교통비	5,409,273	21.3
식/음료비	8,964,664	35.3
문화오락	1,574,530	6.2
스포츠경기관람	355,539	1.4
기념품 및 쇼핑비	1,904,674	7.5
기타여행관련용품구입비(전후)	406,330	1.6
기타	1,472,948	5.8
합 계	25,395,64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재구성

(2) 관광공급부문: 관광산업통계

- 관광산업을 공급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 관광산업통계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가 유일하며,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관광산업통계를 생성하기도 함.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관광공급 측면에서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관광사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자수를 제공하는 통계이므로 관광산업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관광사업체를 정하여 조사하므로 관광 관련 타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누락할 수 있어 관광 산업의 분류는 수요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광산업통계(특수분류)

-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기초한 관광산업통계는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통계는 아니며, 특수분류에 기초하여 기존의 전국경제총조사 통계로부터 코드 매칭에 의해서 통계를 생성함.
- 코드매칭에 의한 통계생성 방식은 코드 간의 연결이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를 들면, 면세점 등 관광과 관련된 소매업은 정의할 수 있으나 면세점 등은 KSIC에서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으며, 다양한 운수업이 관광관련 연관성이 높지만, 통계청의 기존 통계로부터 관광 관련 분야만 추출해내는 것도 불가능함.

<표 II-12> 관광산업특수분류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비교

관광산업 특수분류			특수분류 내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부 문	분류번호	내 용	
핵심관광 산업	101~108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u>관광음식점 및 주점업</u> ,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카지노업	관광쇼핑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레저스포츠산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201~204	관광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
부분적용 관광산업	301~306	관광 비 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u>전문기술서비스업</u> , 부분관광 기타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중 관광사진업
관광 지원산업	401~404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공공기관,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	-

자료: 통계청

(3) 국내 관광산업 통계의 문제점

- 첫째, 관광통계에 따라 분류방식과 집계방식의 차이에 의해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의 실제 파악이 어려워, 관광산업의 경제적 위상 파악이 어려움.
- 특수목적분류 기준 관광산업은 별도로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광산업 통계를 생성함으로써 과다 추정되고 있음.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객의 지출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소 추정되고 있음(2014년 기준 약 22.6조원).

<표 II-13> 관광산업 주요 통계의 비교

항목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억 원)
특수목적분류 (2010년기준)	관광관련 산업전체	627,056	2,586,326	3,389,499
	핵심관광산업	108,257	678,920	1,169,124
	상호의존 관광산업	101,690	440,470	1,131,681
	부분적용 관광산업	373,484	848,775	342,149
	관광지원산업	43,625	618,161	746,545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15)	전체 관광사업체	23,874	235,604	223,582
	여행업	14,607	84,558	6,473
	관광숙박업	1,503	70,305	7,860
	관광객이용시설업	1,213	11,065	789
	국제회의업	619	15,131	1,760
	카지노업	17	9,418	2,804
	유원시설업	1,060	17,224	1,538
	관광편의시설업	4,855	27,902	1,134
관광소비지출액 (2015)	국민국내+외래객	-	-	427,061
	국민(국내외)+외래	-	-	674,0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둘째,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표본의 선정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여행실태조사는 전국의 2,5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적은 표본 수로 인한 통계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의 경우 외래관광객 수의 증가 및 국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16개국의 한정된 조사 국가 및 6곳의 조사지점⁴⁾으로 인해 통계의 신뢰성이 낮음.

- 셋째, 관광산업 정의와 수요조사의 관점이 달라 관광산업의 수급불일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의 여행은 수요측면에서 관광여행 및 기타여행(가사목적, 비즈니스, 교육훈련 목적 등)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 국내여행에서 제외
 - 그러나 공급측면에서의 관광통계는 이러한 여행(또는 관광)과 비 여행의 지출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함.

- 넷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 높은 통계가 부재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해당년도에 조사가 실시되나 최종결과는 익년 5월에 발표됨에 따라 정책반영의 시의성 문제 발생

4)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및 인천·부산항

Ⅲ.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개선방안

1. 관광산업의 분류 기준

(1) 기존 관광산업의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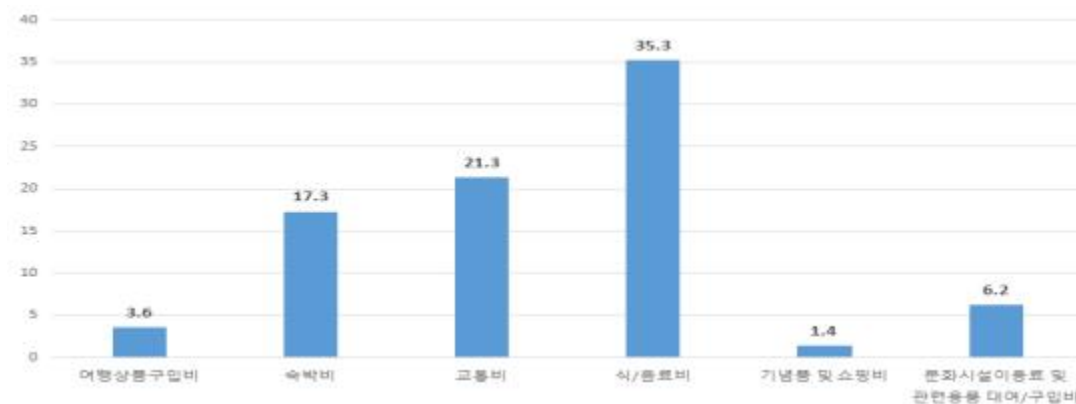
□ 소비자 행위 중심의 분류

○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등 관광수요 통계의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는 수요자(여행객)들의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행상품구입비’, ‘숙박비’, ‘교통비’, ‘식/음료비’, ‘문화오락’, ‘스포츠경기관람’, ‘기념품 및 쇼핑비’ 등으로 구성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역시 방한 외래객들의 국내 지출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항목으로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지출’, ‘문화관련 지출’, ‘한국여행사 지불비’ 등이 있음.

<그림 Ⅲ-1> 내국인 국내여행지출 항목별 비중

단위: %



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2015)

○ 이와 같은 관광수요 통계에서 여행객들의 관광행위 항목 중심의 조사는 이론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관광산업은 수요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행함에 따라 저장이 불가능하고,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 소비자 행위 중심 분류의 문제점

○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출 행위 항목을 이것을 산업과 연계하여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가령, 내국인의 국내 여행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활동은 ‘식/음료비’이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에 해당됨.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공급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급량 중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측정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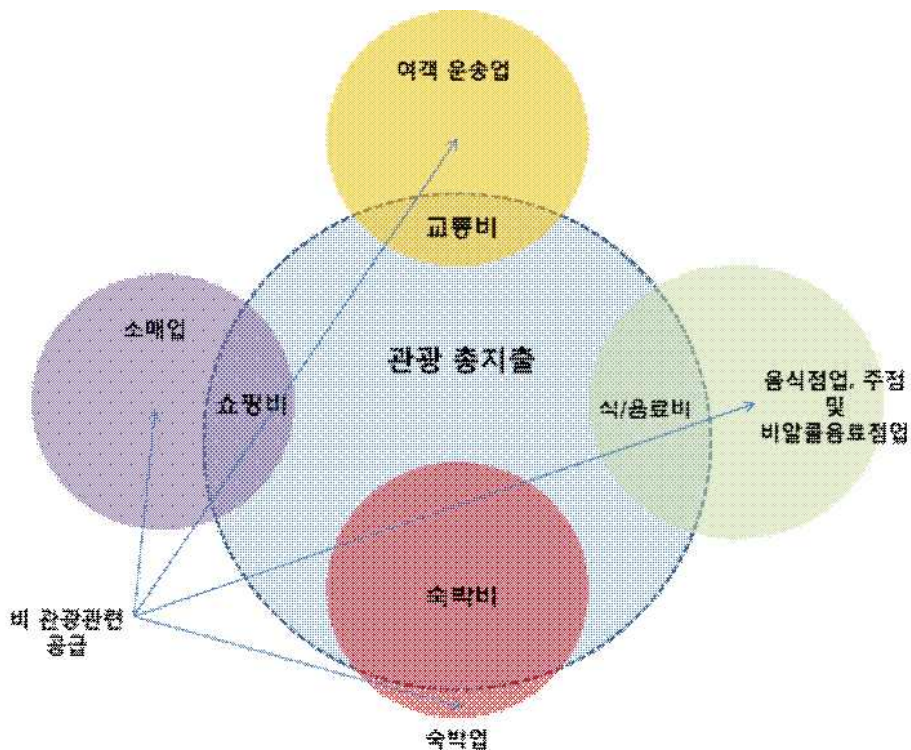
○ ‘교통비’ 역시 ‘식/음료비’와 함께 주요 관광활동에 해당되지만, 앞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

- 여행객들의 이동수단으로 철도, 버스, 수상여객 및 항공여객 등이 있으며, 지출비용 조사 시 하위 항목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음식점업’ 등과 마찬가지로 해당산업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는 관광산업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일부가 관광산업에 속하는 것일 뿐임.

- 반면, 여행객의 지출 행위와 산업측면에서 서비스 공급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숙박비’를 꼽을 수 있으며, 관광의 범위를 넓게 적용할 경우 여행객의 숙박비 지출은 KSIC 상 ‘숙박업’ 및 유사업종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요에 해당될 수 있음.
 - 외래관광객의 지출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비’의 경우 국내외 출·입국객으로 이용자가 한정되는 ‘면세점’은 이론적으로 ‘공급=관광 수요(지출)’이 성립할 수 있음.
 - 하지만, ‘쇼핑비’ 항목에 조사된 지출 중 백화점 및 다양한 소매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전·후 지출은 해당 업종의 공급량 중 일부만이 관광수요에 해당되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그림 Ⅲ-2> 주요 관광지출 활동과 관련 산업 공급 간의 관계



(2) 산업 활동 중심의 분류 필요성

- 산업이란 생산단위(기업체 또는 사업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산업을 분류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산업의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임.
 - 산업 결정의 우선순위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부가가치의 크기가 측정이 어려울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또는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기존의 분류체계 및 통계, 다수 연구에서 제시되는 ‘관광산업’은 ‘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측면의 산업 활동이 아닌 소비자의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산업의 정의에 따를 경우 관광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관광활동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
 - 즉, 철도운송업, 음식점업 등은 수요측면의 활동 기준에서는 핵심 관광활동에 해당하지만, 관광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주를 이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해당될 수 없음.
- 하지만,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관광산업을 정의할 경우 기존 산업분류체계의 비교, 연계 등이 용이하며, 명확한 분류체계 정립에 따른 통계 마련에 따라 산업의 규모 파악이 용이함.

- 그러나,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 활동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산업의 규모를 과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 병행되어야 함.
 - 음식점이나 쇼핑 관련 업종 등의 경우 관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에 따라 성질상 관광산업의 핵심 상품이지만, 업종 전체 부가가치 중 관광에 의한 부가가치가 작을 경우 관광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임.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산업 활동 중심의 기준에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산업 분류체계로 크게 4개의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였음.
- 핵심 관광산업: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
 - 상호의존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
 - 부분적용 관광산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 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수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 관광 지원 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 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
- 그러나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산업 활동 중심의 분류 기준에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분류체계 상 제시된 업종을 구분하고 해당 통계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광산업 특수분류에서 제시된 업종들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가별 관광위성계정 (TSA)에서 제시된 소비자 관광상품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 핵심관광산업의 관광 인증 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중요한 지출 활동이지만 산업 활동의 기준에 따라 실제 생산단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음.
 - 또한, 부분관광산업에서 분류된 업종의 대부분은 정의상 핵심관광산업과 구별되지만, 실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개별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상호의존관광산업의 관광건설업, 관광지원산업 등은 관광에 의한 관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파급효과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그 밖에도 부분관광산업의 관광사진업은 산업 규모면에서 미미함에 따라 산업으로써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료 관광 등 신규 관광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도 제외되어 있음.
- 이처럼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명목 상 산업 활동을 기준과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간 구분의 모호성, 실제 산업 활동과의 괴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산업의 분류체계의 주된 목적인 통계 생성을 통한 산업 규모 파악 및 정책적용 대상의 산정이 어려움에 따라 실제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
- 기존 산업 분류 체계 내에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경우 법령 상 제시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

- <표 III-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광산업 특수분류에서 제시된 업종 중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실시되는 업종은 지극히 제한적임.
 -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업종 중 다수가 실제 산업계에서 구분되지 않는 업종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구분이 가능한 숙박업, 문화체육 관련 업종에 대해서 기초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론적으로 산업의 규모 파악, 정책 대상의 명확화 등을 위해서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경우 소비자의 행위가 아닌 산업 활동 중심의 기준에 따라 분류체계 및 통계 구축이 필요함.
-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및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Ⅲ-1> 관광산업 특수 분류 항목별 분석

□ 핵심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부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비 고					
101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
1010100	면세점		×	○	○	○	
10102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1010300	관광 인증 쇼핑업		×	○	○	○	
102	관광 운수업			○	×	○	○
1020100	관광 철도운송업		×				
1020201	시내순환관광업		○				
1020202	전세버스 운송업		×				
1020203	관광케도업		○				
1020301	관광유람선업		○				
1020302	크루즈업		○				
1020401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				
1020402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				
103	관광 숙박업			○	×	○	○
1030101	관광호텔업		○				
1030102	수상관광호텔업		○				
1030103	한국전통호텔업		○				
1030104	가족호텔업		○				
1030105	호스텔업		○				
1030200	휴양콘도미니엄업		○				
1030300	관광펜션업		○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부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비 고					
1030401	산림휴양림업		×				
1030402	게스트하우스		×				
1030403	레지던스 호텔		×				
1030404	관광 인증 모텔업		×				
1030405	민박업		×				
103040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홈스테이)		○				
1030407	자동차야영장업		○				
1030408	한옥체험업		○				
103049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				
104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1040100	관광식당업						
1040201	관광유흥음식점업						
1040202	관광극장유흥업						
1040203	관광공연장업(식사·주류포함)						
1040204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05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	○	○	○
1050101	일반여행업		○				
1050102	국외여행업		○				
1050103	국내여행업		○				
1050200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106	국제회의업			○	×	○	○
1060100	국제회의기획업		○				
1060200	국제회의시설업		○				
107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	×	○	○
1070101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부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비 고					
1070102	사적지 관리 운영업		×				
1070201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				
1070202	자연공원 운영업		×				
1070299	기타 관광지 운영업		×				
1070301	종합유원시설업		○				
1070302	일반유원시설업		○				
1070399	기타유원시설업		○				
1070400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				
1070501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				
1070601	경주장 운영업		×				
1070602	골프장 운영업		×				
1070603	스키장 운영업		×				
1070604	낚시장 운영업		×				
1070605	수상 오락 서비스업 (유원시설 제외)		×				
1079901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				
108	카지노업		○		×		○
1080100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		○	
1080200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		×	

□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비 고					
201	관광 건설업		×	×	×	×	×
2010101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에 의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						
2010201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2010202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2010299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202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	○	○	○	○
2020100	레저용 의복 소매업	소매업과의 구별 실익 없음					
2020200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2020300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0204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20400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3	관광보험및금융서비스업		×	○	○	○	○
2030100	여행자 보험업						
2030201	여행자 수표 발행						
2030202	환전소						
204	레저장비업		×	○	○	○	○
2040100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관광 연관성 낮음					
2040201	레저장비 임대업						
2040202	운송장비 임대업						
20403	자동차 임대업						
2040301	캠핑카 임대업						
2040302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2040303	일반 자동차 임대업						

□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비 고					
301	관광 비인증 쇼핑업	101 유사	×	○	○	○	○
3010000	관광 비인증 쇼핑업						
302	부분관광 운송업	102 유사	×	○	×	○	○
3020101	도시간 철도 운송업						
3020102	도시내 철도 운송업						
3020103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3020104	시내외버스 운송업						
3020105	택시 운송업						
3020201	수상운송업						
3020202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303	부분관광 숙박업	103 유사	×	○	×	○	○
3030100	청소년수련원						
3030200	관광 비인증 모텔업						
304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104 유사	×	○	×	○	○
3040101	관광 일반음식점업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3040299	기타 관광 주점업						
305	부분관광 공연장업	107 유사	×	○	×	○	○
3050001	일반 공연시설 운영업						
306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	○	○	○
3060101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				
3060102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				
3060201	관광사진업	규모 미미	○				
3060202	통역 서비스업		×				
3069901	온천탕		×				
3069999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				

□ 관광 지원산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여행 전·후 국내지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국인 국내 관광지출)	국가별 TSA 종합
분류코드	분류항목					
401	관광 연구 개발업	×	×	×	×	국별 상이
4010000	관광 연구 개발업					
402	관광 공공기관	×	×	×	×	국별 상이
4020100	문화 및 관광행정					
4020200	관세 행정					
4020300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4020400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403	관광 교육서비스업	×	×	×	×	국별 상이
4030101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4030102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4039901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4039902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404	관광 단체	×	×	×	×	국별 상이
4040101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4040102	여행클럽					
4040200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관광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2.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개선방향

(1)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

○ 본 절에서는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 등 국제기구의 TSA 및 주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활동을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크게 ‘핵심 관광산업’과 ‘부분 관광산업’으로 구분하여 관광산업의 범위 개선안을 제시함.

- 핵심 관광산업: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의 주된 산업 활동이 관광⁵⁾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이 주로 관광 수요자의 지출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산업을 의미

- 부분 관광산업: 생산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이 관광과의 연계성이 높지만,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이 관광 수요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산업을 의미

○ 그러나 본 절에서 제시한 제시하고 있는 관광산업 개선안은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정부지출, 민간 경제주체의 투자 부문은 제외됨.

□ 핵심 관광산업

○ 핵심 관광산업은 크게 ‘관광쇼핑업’, ‘숙박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및 ‘국제회의업’으로 구분됨.

- 관광쇼핑업에는 ‘면세점’,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으로 세분되며, 해당 업종들은 수요자들이 관광객 또는 여행객으로 한정되므로 관광 수요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의존도가 높음.

5) 본 연구에서의 ‘관광’의 범위는 ‘취업 등의 경제행위 외의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여행하고 돌아오는 행위’라는 광의의 의미에 해당됨.

- 숙박업은 본 연구에서 관광의 개념을 ‘거주지를 떠나 여행하고 돌아오는 행위’로 규정하므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관광 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핵심 관광산업으로 분류함.

□ 부분 관광산업

- 부분 관광산업은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연계쇼핑업 및 ‘의료관광서비스’로 크게 4개의 분류로 구성하였음.

-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연계쇼핑업은 수요자의 관광 지출 활동에서 비중이 높은 핵심 활동에 해당되며, 의료관광서비스는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최근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관광분야임.

- 하지만, 이들 업종 모두 관광활동과의 연계성이 높지만,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관광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에 따라 부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였음.

- 운송업은 철도 여객운송업, 도로 여객운송업, 수상 여객운송업 및 항공 여객 운송업으로 구분됨.

- 도로 여객운송업은 도시 철도,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일단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 중 관광수요자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음식점 및 주점업, 연계쇼핑업은 국내·외 관광 수요자의 지출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업체 또는 기업체들의 산업 활동에 의한 공급량 중 관광수요에 의한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움.

- 해당 업종의 분포는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하므로 관광지의 사업체의 매출 중 관광수요의 기여도는 비 관광지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관광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관광수요 기여도가 차이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또한, 업종별로 다양한 하위 업종이 존재하지만 관광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부 분류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III-2>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

□ 핵심 관광산업

대분류	중분류	추정 방법	관련 KSIC	비고
1. 관광쇼핑업				
면세점	-	조사*		
2. 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조사*	55111	
	수상관광호텔업	조사*		
	한국전통호텔업	조사*		
	가족호텔업	조사*		
	호스텔업	조사*		
휴양콘도미니엄업	-	조사*	55112	
여관업	모텔업	조사	55113	
기타 숙박관련 시설업	관광펜션업	조사*	55119	
	산림휴양림업	조사		
	게스트하우스	조사		
	레지던스 호텔	조사		
	민박업	조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조사*		
	자동차야영장업	조사*		
	한옥체험업	조사*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조사		
	청소년수련원	조사		
3.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내여행업	-	조사*	75212	
국외여행업	-	조사*	75211	

대분류	중분류	추정 방법	관련 KSIC	비고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조사	75290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	조사	63991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	조사	58119	
통역 서비스업	-	조사	73902	

4. 여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	조사		
환전소	-	조사		

5.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문화 관광	박물관 운영업	조사	90221	미술관 포 합
	공연시설 운영업	조사	90110	
	사적지 관리운영업	조사	90222	
자연 관광	식물원, 동물원운영업	조사	90231	
	자연공원 운영업	조사	90232	
	기타 관광지 운영업	조사	90290	
유원 관광	종합유원시설업	조사*	91210	
	일반유원시설업	조사*	91210	
	기타유원시설업	조사*	91229	
체험 관광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조사	90232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조사	91299	
스포츠 관광	경주장 운영업	조사	91113	
	골프장 운영업	조사	91121	
	스키장 운영업	조사	91122	
	낚시장 운영업	조사	91231	
	수상 오락 서비스업	조사	91139	유원시설 제 외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조사*	91249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조사*		
장비 임대	레저장비 임대업	조사	69210	
	자동차 임대업	조사	69110	
온천탕	-	조사	96121	

6.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	조사*	75992	
국제회의 시설업	-	조사*		

□ 부분 관광산업

대분류	중분류	추정 방법	관련 KSIC	비고
1. 운송업				
철도 여객운송업	-	추계	49100	
육상여객운송업	-	추계	49211, 4921 49219, 49220 49231, 49232	도시철도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수상 여객운송업	-	조사	50111, 50121, 50201	내·외항 여객 내륙 수상 여객
항공 여객운송업	-	조사	51100, 51200	정기, 부정기 항공
2. 음식점 및 주점업				
일반 음식점업	-	추계	5611, 5619	
주점업	-	추계	56211, 56212	
비알콜 음료점업	-	추계	56220	
3. 연계 쇼핑업				
대형 종합 소매업	-	추계	4711	백화점 대형쇼핑몰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4712	슈퍼마켓, 편의점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		474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47430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476	여행서적, 레저장비
연료 소매업	-		477	주유소, 가스 충전소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47813	화장품, 향수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4783	
4. 의료관광서비스				
의료 치료형		조사		질환치료, 임신·출산
미용·웰빙 증진형		조사		건강검진, 성형

주: '조사*' 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목

(2) 세부 실행 방안

□ 관광산업 총조사(가칭)

- 핵심 관광산업 대부분의 업종 및 부분관광산업의 의료관광서비스 부문은 관광수요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되는 비중이 높고 KSIC 상의 분류와 직접

적인 연계가 가능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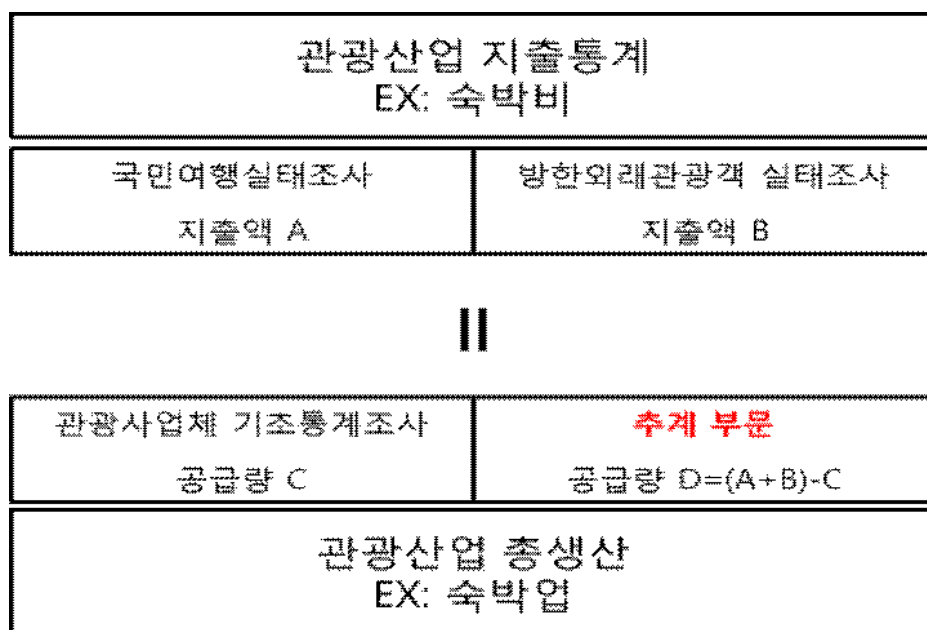
- 관광산업 공급 총량 파악을 위해 우선, 기존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을 반영하여 보완 및 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과 같이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해당 생산단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임.
- 따라서 개선안에서 조사가 가능한 핵심 관광산업 및 관광연계 산업의 해당 업종 중 현행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조사 범위 확대 필요
- 호텔업, 기타 숙박관련 시설업은 다양한 세부업종과 연계되는 KSIC 코드가 한정되어 있지만,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고 해당 업종의 생산단위 및 부가가치 파악이 용이함.

□ 총량배분 방식

- 다음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부분 관광산업 대부분 업종의 경우 간접적인 추계 방식을 통해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이 있음.
 - 음식점, 소매업 등은 사업체의 지리적 분포가 크고, 사업체수도 방대함에 따라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사업체 자체적으로 관광수요자와 비 관광 수요자의 식별이 어려움.
- 총량배분 방식은 수요부문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관광 지출액을 총량으로 가정하고 해당 부문의 지출액 중 실태조사 및 기존 자료를 활용해 추정이 가능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액을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할당하는 방식임.

- 총량배분 방식은 관광산업의 특성 상 ‘관광수요=관광공급’ 이 성립하고, 관광서비스 및 상품은 최종소비재의 형태라는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임.
- 총량배분 방식은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등 관광수요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집계될 경우 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앞서 언급한 수요측면의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Ⅲ-3> 총량배분 방식 개념



□ 관광산업 총조사(가칭)을 활용한 관광위성계정 작성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산업 범위(안)은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제시함에 따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부지출, 호텔 및 관광 인프라 건설을 위한 관련 민간 투자 등이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전체 경제측면에서 보다 관광산업의 규모와 그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ing, 이하 TSA)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TSA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작성됨에 따라 국가별 관광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계 관광산업 시장에서의 정확한 위상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써 그 활용 가치가 높음.
 - 현재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관광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작성 권고안을 기준으로 각 국의 특성을 반영한 TSA를 도입하고 있음.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는 UN 통계국이 권고하는 TSA methodology(TSA:RMF 2008)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국가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
 - 하지만, WTTC 발표의 경우 한국은 TAS를 도입한 국가에 비해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함에 따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관광산업의 규모 및 경제적 기여도가 과소 추정되어 발표되고 있음.⁶⁾
- TSA 작성을 위해서는 수요측면, 공급측면에 대한 통계자료, 산업연관표 등 다양한 기초통계가 필요함.
 - 따라서, 기존의 통계조사를 보완, 확대한 관광산업총조사(가칭)가 정확하게 집계될 경우, TSA 공급부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가치가 높을 것임.

(3) 관광위성계정 도입

□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특성

- 관광위성계정(이하 TSA)는 국민계정체계 내의 개념들을 관광산업에 적용시킨 것으로, 개별산업으로 구분이 어려운 관광분야를 측정하기 위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으로 제시된 개념임.

6) 2015년 기준 한국 관광산업의 전체 GDP 기여율은 5.1%로 세계평균 9.8%, 주변국 일본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TSA는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국내관광, 내국인 해외관광 등의 형태를 설명하고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에 따라 관광객의 지출과 관광 공급 측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관광과 국민계정체계, 국제수지 등과의 구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함.
- TSA는 관광산업과 여타 산업에서의 공급, 관광객의 수요 및 관광산업에서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음.
- TSA는 관광산업의 국내 총생산을 집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므로, 향후 관광산업 관련 통계 및 경제효과를 위한 기초 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상품·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서 각 경제주체의 활동의 측정에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음.

<표 III-3> 국제기구별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국제기구	관광위성계정(TSA)의 개념
WTO	관광분야 전반에 걸친 경제적 크기 및 수요·공급 측면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표
OECD	관광경제와 관련한 정책 분석 및 성장, 생산성 분석, 경제모형 설정 등을 위한 프레임 제공
WTTC	개인, 기업체, 정부 등 경제주체의 지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

□ 관광위성계정의 구성 및 측정방법

- TSA:RMF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TSA는 총 10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들은 관광객의 소비활동, 관광산업 및 관련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상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 총 고정자산 형성, 관련 행정 지출 등에 관한 표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관광객의 소비활동, 관광산업 및 관련 기타 산업의 관광 상품 생산 등을 통해 관광 국내총생산의 계산이 가능함.
 - 다양한 표의 작성을 통해 경제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체계를 기초로 함에 따라 고용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표-1~3은 입국 외래관광객의 국내 관광소비, 자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소비 및 자국 관광객의 국외여행 등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관광소비를 제시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의 관광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 해당 표들의 작성은 통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표-4는 표-1과 표-2를 연계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소비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객의 관광상품 소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표-5는 관광산업의 생산계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관련 사업의 생산구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생산의 경제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표-6은 표-4에서 제시된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지출과 표-5의 국내 관광 상품의 규모를 종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임.
- 관광 부가가치와 관광 국내총생산 산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III-4> TSA 표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표-1	외국인 국내관광지출	관광 수요
표-2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및 해외관광 국내지출	
표-3	내국인 국외관광지출	
표-4	국내 관광소비 종합	
표-5	관광산업 및 기타산업 생산계정	관광 공급
표-6	총공급 및 국내관광소비	
표-7	관광산업 고용	
표-8	관광산업 및 기타산업의 총 고정자본 형성	
표-9	정부의 관광관련 공동소비	
표-10	비화폐적 지표	

자료: TSA:RMF 2008

□ 관광위성계정의 주요 측정 지표

○ TSA의 주요 목적은 관광 소비의 제품 구성, 방문객 활동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산업, 그 산업과 다른 산업의 관계 등 관광의 모든 측면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TSA의 관광부문 총합계는 관광의 규모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시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TSA표에서 도출되는 주요 총합계는 한 국가의 소비 및 부가가치와 관련된 여타 거시 경제 지표와 비교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TSA:RMF 2008에서는 한 경제의 관광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총합계를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내 관광 지출, 국내 관광 소비, 관광산업의 총부가가치, 관광 직접 총부가가치, 관광 직접 국내총생산, 관광 고용

○ 첫째, 국내 관광 지출과 국내 관광 소비(표-4에 기록)는 해당 경제 내에서 이루어진 방문객의 획득 행위 전반에 대한 특성을 보여줌.

- 관광 지출은 가장 쉽게 측정된 지표이고, 관광 소비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이며 관광 지출과 관광 소비에는 모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생산자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음.
- 둘째, 관광산업의 총부가가치는 생산물 전체가 방문객에게 제공되는지, 생산 과정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 산업에 속한 모든 사업체의 총부가가치를 합한 값을 의미함.
- 생산물이 방문객 또는 편의상 다른 사람에 의해 획득되는 여타 비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는 여기에서 제외됨.
 - 해당 경제에서 관광의 직접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의 관광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부적합
- 또한, 관광 직접 총부가가치는 관광 산업과 국내 관광 소비에 부응해 방문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해당 경제의 여타 산업으로 인해 창출된 총 부가가치 중 일부를 합한 것으로 정의
- 이 총합계에 ‘직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관광위성계정이 방문객의 소비로 인한 부가가치 중 일부만 측정하고 이러한 소비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파생 효과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 생산 과정과 관련된 지표인 부가가치는 이 과정의 생산물에 대한 사용과는 무관하지만, 관광 소비는 전적으로 최종 소비 지출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중 일부에서 창출된 수요에 대한 대응, 즉 중간 소비는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
- 셋째, 국내 관광 소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GDP의 일부분은 국내 관광 소비에 부응해 모든 산업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기본 가격) 부분과 이 지출의 가치 내에 포함된 제품 및 수입품에 대한 순 세액(소비자 가격)을 합산

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 ‘GDP의 일부분’을 관광 직접 국내총생산을 의미함.

- 이는 한 경제의 GDP는 모든 산업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기본 가격)와 제품 및 수입품에 대한 순 세액을 합산한 것과 같기 때문임.
- 따라서 관광 직접 국내총생산은 관광 직접 총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국내 관광 소비로부터 도출

○ TSA의 관점에서 관광 공급의 특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이 관광 직접 국내총생산과 관광 직접 총부가가치임.

- 이 두 측정지표는 해당 경제에서 관광의 직접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해당 경제의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이러한 비중은 해당 국가가 채택한 관광 소비 항목의 측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관광 직접 총부가가치와 관광 직접 국내총생산이 해당 경제 내에서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기여도만 고려하기 때문임.

○ 넷째, 방문객이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와 직결되며 관광산업이나 기타 산업에서 창출하는 고용을 의미하는 관광 고용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TSA에서는 관광산업에서 고용을 추정하는 것만 권장함.

- 생산의 한 요소인 노동은 사업체의 총 생산물과 관련되어 있으나 특정한 가정 및 모형화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생산물이나 생산물의 일부에 할당할 수 없기 때문임.
- OECD 관광 고용 모듈(OECD, 2000)은 관광산업의 고용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침과 통계 권고안을 제공

- 다섯 째, 관광 총 고정 자본 형성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의 주안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총합계가 도출될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이 특별히 중요한 국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통계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관광 총 고정 자본 형성 총합계를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정한 총합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관광 총 고정 자본 형성과 관광 공동 소비의 경우 추정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는 방법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 추정에 대한 운영 솔루션을 정의한 경험이 국가 통계청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
- 마지막으로 공동 비시장 서비스가 관광 소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공 부문은 관광 활동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 부문은 관광 활동을 위한 법률적 기틀을 마련해주고, 서비스 생산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권 제공 및 행동 강령 수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
 - 또한, 공공 부문은 민간 투자에 대한 법률적 기틀과 자연 환경,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해주고,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기도 함.
- 하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개념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국가에서만 이 부문을 고려해 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측정에 관한 경험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임.
 - 이에 따라 관광 공동 소비의 추정은 유용한 통계 기법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 측정방법

- 먼저, 수요 측면에 있어 TSA:RMF 2008은 외국인 국내관광객 조사는 지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고, 성수기, 비수기 등 특정 시점에만 실시 가능
 - 국경에서 조사 수행이 어려운 개방 형태의 국가들을 조사해야하는 경우에는 유료숙박시설의 고객정보, 해당 국가 거주자의 해외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 및 신용카드 기록과 같은 기타자료로 보완할 수 있음.
-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이나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측정할 경우, 일반 가구 지출조사에 사용되는 월별, 분기별 주기조사를 활용하거나, 관광 지출 측정에 특화된 가구조사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은행 신고시스템, 신용카드 명세서, 여행사, 기업 및 교통 통제당국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내국인 방문객들에게 특정 여행 및 방문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억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공급측면에서는 관광산업의 서비스 공급을 측정함에 있어 개별 국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사 발전 수준에 따라 이미 일반 경제조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거나, 경제센서스와 함께 행정기록 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해야하는 경우도 많음.
 - 특히, 식음료시설 등과 같이 비공식 생산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경우 이에 관한 정보 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 표준화된 연간조사를 통해 산업별로 분류된 시설 단위의 수, 주요 생산품의 산출량과 중간소비, 부가가치, 고용 및 임금, 재고 및 자본재에 대한 투자 등 관련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 가능

- 생산 활동의 공급과 방문객의 소비를 연결시킴에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들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한국의 관광산업 규모 추정

(1) 관광산업 수급 구조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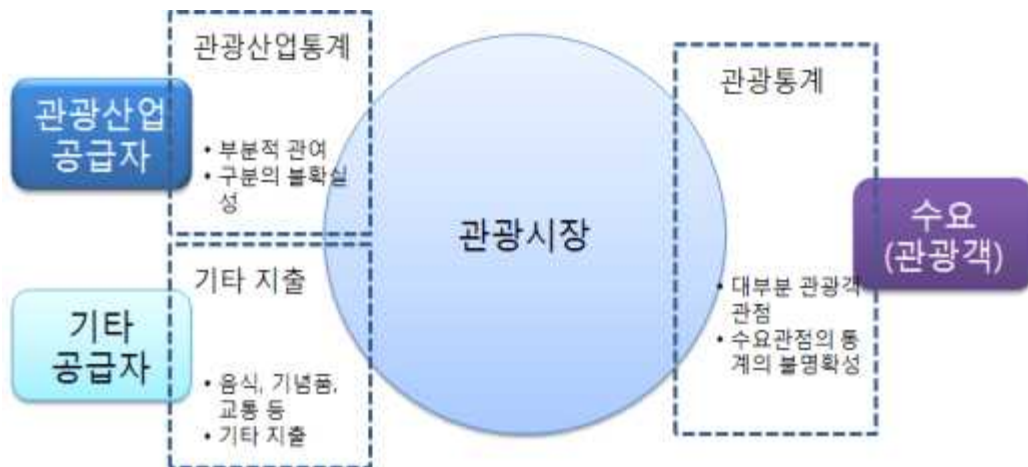
- 관광산업의 수요부문은 내국인 국내 관광지출, 내국인 해외여행 전·후 국내 지출 및 방한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로 이루어짐.
 - 내국인 국내 관광지출 및 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은 내국인/방한 외국인이 국내의 공급자에 대해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 내국인 해외여행 전·후 국내 지출은 내국인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자의 관광 내구재 및 국내 항공사 이용에 대한 항공비용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 수요부문의 국내관광 총지출은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한국은행의 여행수지와 같은 관련 통계조사를 활용해 추정하는 방법이 있음.
 - 국민여행실태조사는 내국인의 관광지출 부문 세부 항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내국인 국내관광 총지출을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래관광객의 국내 관광지출의 총액은 한국은행의 여행수지 중 여행수입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관광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여행수입 자료는 세부구조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조사 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행 여행수입 자료의 총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내국인의 해외여행 전·후 국내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 자료가 없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 관광산업의 공급은 기업 또는 사업체들이 제공하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관광산업의 수요와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관광산업 공급에 대한 통계조사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미확인 분야의 크기는 (관광수요 총량-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
 - 그러나 세부적 항목의 종류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작성되는 관련 통계 및 자료를 통해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표 Ⅲ-5> 관광산업 수급구조와 추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수요 = 관광산업 공급 • 관광산업 수요 = 내국인 국내관광 총지출 + 외국인 국내관광 총지출 + 내국인 해외관광 전·후 국내 지출 • 관광산업 공급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기타(미확인 분야)
--

<그림 Ⅲ-4> 관광산업의 수급과 통계



(2) 국내 관광산업 총량 추정

- 국내 관광산업의 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급·수요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종별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기존의 통계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량배분 방식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총량을 추정하였음.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항공통계, 관세청 자료, 의료관광통계 등을 이용해 수요부문 및 공급부문의 규모를 파악
 - 공급부문의 경우 관광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미조사 부분은 지출총량에서 기초통계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반대로 여행업, 문화, 오락 및 스포츠업과 같이 공급부문의 기초통계 조사 금액이 지출부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지출부문에 배분함으로써 항목별 지출통계와 총생산이 일치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내관광산업 지출 및 총생산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관광산업 총규모는 약 73조 1,289억 원임.
 - 관광산업 지출은 국민 국내 관광지출분 약 25조 3,956억 원,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 분 20조 7,795억, 방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분 17조 3,105억 원과 기타지출 및 미확인분 9조 6,284억 원으로 구성
 - 관광산업 총생산 부문은 전체 관광산업 규모 중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집계된 생산분은 22조 3,582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50조 7,707억 원은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한 총량배분 방식 및 관련 통계를 활용해 추정

<표 Ⅲ-6> 2015년 국내 관광산업 지출 및 총생산 규모 추정

단위: 억 원

관광산업 총지출						관광산업 총생산			
세부항목	국민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관광 국내지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	기타지출 및 미확인	합계	업종	구분	금액	비고
쇼핑비	37,840	25,887	95,567		159,293	쇼핑업	관광쇼핑업	87,881	면세점
							비관광쇼핑업	71,412	백화점 및 일반 소매업
숙박비	43,934		36,128		80,063	숙박업	기초통계조사	54,039	관광숙박업 객실매출액, 전문 및 종합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펜션 업,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조사 외	26,024	모텔업 등
여행사 지불	9,142	30,511	80	24,993	64,726	여행업	기초통계조사	64,726	여행업
문화/오락/스포 츠 관련 지출	19,301		3,580	21,130	44,010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 업	기초통계조사	44,010	관광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교통비	54,093	151,397	7,061		212,551	운송업	기초통계조사	4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 업, 시내순환관광업
							조사 외	212,118	철도 여객, 항공, 도로 여객 수송업
식음료비	89,647		23,996		113,643	음식점 및 주점업	기초통계조사	10,066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 업
							조사 외	103,577	일반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	-	-	32,707	32,707	기타	기초통계조사	32,707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 매출액, 관광 사진업
의료관광서비 스	-	-	6,694	-	6,694	의료관광서비 스	총진료비	6,69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국제회의업	-	-	-	17,603	17,603	국제회의업	기초통계조사	17,603	
실태조사 합계	253,956		173,1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합계		223,582	
지출합계	253,956	207,795	173,105	96,432	731,28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외		507,707	
총계	731,289					총계	731,289		

- 전체 관광산업 중 내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은 46조 1,752억 원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국내 관광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4.5%인 교통비로 이는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항공료 지출 금액 때문임.
 - 이를 제외할 경우 내국인이 국내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부분은 식음료비와 쇼핑비인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은 17조 3,105억 원으로 전체 관광산업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이 국내 관광 시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쇼핑이며 숙박과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지출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⁷⁾

7) 201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1조 3천억 여원으로 기타지출 및 미확인분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Ⅲ-7> 2015년 내·외국인 국내관광 지출 비교

단위: 억 원, %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	기타지출 및 미확인
쇼핑비	63,727	95,567	-
	(13.8)	(55.2)	-
숙박비	43,934	36,128	-
	(9.5)	(20.9)	-
여행사 지불	39,653	80	24,993
	(8.6)	(0.0)	-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지출	19,301	3,580	21,130
	(4.2)	(2.1)	-
교통비	205,490	7,061	-
	(44.5)	(4.1)	-
식음료비	89,647	23,996	-
	(19.4)	(13.9)	-
기타	-	-	32,707
	-	-	-
의료관광서비스	-	6,694	-
	-	(3.9)	-
국제회의업	-	-	17,603
	-	-	-
합계(A)	461,752	173,105	96,432
비중(A/B)	63.1	23.7	13.2
총합(B)	731,28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항목별 비중임.

○ 추정된 관광산업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약 57조 6,300억 원이 었으며, 2015년에는 73조 1,28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7% 증가

- 업종별로는 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9%~3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관광서비스는 규모 측면에서는 1%에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위한 의료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I-8> 관광산업 추정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총계	576,300	655,618	665,128	738,372	731,289	-1.0
쇼핑업	108,790	118,656	122,313	150,806	159,293	5.6
	(18.9)	(18.1)	(18.4)	(20.4)	(21.8)	
숙박업	69,622	73,313	71,008	82,823	80,063	-3.3
	(12.1)	(11.2)	(10.7)	(11.2)	(10.9)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	34,687	37,108	40,362	43,701	44,010	0.7
	(6.0)	(5.7)	(6.1)	(5.9)	(6.0)	
운송업	171,530	194,312	202,019	223,890	212,551	-5.1
	(29.8)	(29.6)	(30.4)	(30.3)	(29.1)	
음식점 및 주점업	94,846	111,816	110,280	120,431	113,643	-5.6
	(16.5)	(17.1)	(16.6)	(16.3)	(15.5)	
의료관광 서비스	1,809	2,673	3,934	5,569	6,694	20.2
	(0.3)	(0.4)	(0.6)	(0.8)	(0.9)	
여행업	44,021	59,091	57,988	53,220	64,726	21.6
	(7.6)	(9.0)	(8.7)	(7.2)	(8.9)	
국제회의업	20,270	22,975	24,083	24,424	17,603	-27.9
	(3.5)	(3.5)	(3.6)	(3.3)	(2.4)	
기타	30,725	35,675	33,141	33,508	32,707	-2.4
	(5.3)	(5.4)	(5.0)	(4.5)	(4.5)	

(3) 추정방법 및 자료

□ 관광산업 총지출

- 관광산업 총지출을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자인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통계자료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련 통계를 활용하였음.

- 국민 국내관광 지출: 내국인의 국내 관광 또는 여행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자료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행경비 지출총액 및 세부 항목별 비중을 활용

-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 내국인이 해외관광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중 국내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출국 시 면세점 지출, 여행상품 구매, 항공료 등이 해당되며 지출규모는 관련 산업 통계를 활용하였음.

-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의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한국은행의 여행수지 중 ‘일반여행수입’, ‘외래관광객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세부항목별 지출 구조를 파악

- 기타 지출 및 미확인분: 해당 부문은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되었으나 공급부문의 통계조사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항목과 공급부문 통계조사에 의한 공급량에 비해 지출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지출량이 적고, 이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 지출에 배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항목을 의미

□ 관광산업 총생산

- 관광산업 총생산을 추정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조사에서 집계되지 않는 공급부문의 경우 관련 산업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음.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경우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은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있으므로 관광산업 총지출의 세부항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사 항목을 재조정하였음.
- 또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집계되지 않았지만 관광산업에서 그 비중이 높은 의료관광서비스, 면세점을 포함한 쇼핑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자료는 해당 산업의 개별 자료를 활용하였음.

(4) 세부항목별 추정방법 및 자료

□ 관광산업 총지출

- 국민 국내관광 지출은 각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총 여행비용을 국민 국내 관광 총지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내국인 국내여행 총비용은 25조 3,956억 원으로써 전체 관광산업 총량의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국내관광 지출의 세부 항목별 지출규모는 내국인 국내여행 총비용에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항목별 지출 비중을 곱하여 도출
- 쇼핑비: 내국인이 국내 여행 중 기념품과 같은 쇼핑활동 및 기타 용품 구매에 대한 지출활동을 의미하며 2015년 기준 쇼핑비 및 기타 용품 구매 비중은 총 여행 경비 중 14.9%를 차지

<표 Ⅲ-9> 2015년 국민 국내관광 지출 항목별 금액 및 비중

단위: 억 원

항목	금액	비중	비고
총여행비용	253,956	100.0	
여행상품구입비	9,142	3.6	여행사 지불
숙박비	43,934	17.3	
교통비	54,093	21.3	
식/음료비	89,647	35.3	
문화/오락/스포츠	19,301	7.6	
쇼핑비	19,047	7.5	쇼핑비
기타(용품 구매 등)	18,793	7.4	

자료: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생성되고 있지 않은 실정
이므로 개별 항목에 대한 시장 자료를 통해 추정하였음.
- 우선 쇼핑비는 내국인의 해외관광 전·후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쇼핑활동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여러 쇼핑활동 중 내
국인의 면세점에서의 지출 활동만을 쇼핑비로 집계하였음.
 - 내국인이 해외여행 전·후 쇼핑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중 면세점을 제외
한 백화점, 기타 소매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면세점에서의 지출과 달리
시장 자료를 통해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2015년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 중 쇼핑비의 지출은 해당 연
도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인 2조 5,887억 원만을 포함하였음.

<표 Ⅲ-10> 내국인의 면세점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시내	출국장	계
2011	12,500	12,082	24,581
2012	10,922	12,438	23,361
2013	10,507	11,766	22,273
2014	10,528	11,727	22,255
2015	13,030	12,858	25,887

자료: 관세청

- 여행사 지불 경비는 내국인이 해외관광을 위해 국내 여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 구입 등에 지불한 경비를 의미하며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여행업에 대한 세부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 2015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여행업의 매출액 중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 판매 매출액은 3조 511억 원임.
- 교통비는 내국인의 해외관광 전·후 지출하는 항공료를 대상으로 하며 대형 항공사 사업 보고서 및 내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통해 내국인의 국제선 여객 수송 규모를 추정하였음.⁸⁾
 - 2015년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송 매출액은 6조 1,998억 원이며 전체 국제선 여객 수송시장의 24.3%를 차지하고 함.
 - 이를 통해 전체 국제선 여객 수송시장 규모는 25조 5,136억 원으로 추정
 - 2015년 내국인 출국자는 1,931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1,323만 명으로 전체 출입국자 중 내국인의 비중은 약 59%
 - 따라서 전체 국제선 여객수송시장 규모 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조 1,397억 원으로 추정됨.

□ 방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

- 방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의 총지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여행수지 중 일반여행수입을 통해 산출하였음.
 - 2015년 일반여행수입은 150억 9,200만 달러로 2014년의 177억 1,200만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음.
 - 이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적용환율은 해당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였으며 2015년 연평균 환율 1,147원을 적용하면 2015년 방한 외래객의 국내 관광지출 총액은 17조 3,105억 원임.

8) 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중 연도별 사업 보고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 활용

- 세부 항목별로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 국내관광 지출과 마찬가지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여행지출 경비 중 항목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일반여행수입에는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료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지만,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지출 조사 항목에는 의료관광 관련 항목이 제외되어 있음.
- 의료관광서비스에 대한 외래객의 지출규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2015년 외래객이 지출한 총 진료는 6,694억 원임.
- 따라서 쇼핑비, 숙박비, 여행사 지불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 지출액 17조 3,105억 원에서 의료관광서비스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 16조 6,411억 원에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별 비중을 곱해서 산출하였음.

□ 기타지출 및 미확인

- 기타 지출 및 미확인은 항목별로 ‘지출=공급’의 가정 하에 공급량이 지출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지출부문에 명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지출을 의미함.
- 여행사 지불 항목에서 기초통계조사의 여행업 공급량(s3) 6조 4,726억 원이 내외국인 여행사에 지출한 금액 (a3+b2+c3)를 초과함에 따라 2조 4,993억 원의 초과 공급이 발생함.
-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지출 역시 공급량(s4)가 지출액(a4+c4)을 초과하고 있으며 해당 미확인분의 크기는 2조 1,130억 원 규모임.
- 특히,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미확인분에는 국내 카지노업체에서 외국인이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⁹⁾

9) 2014년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조 3,772억 원, 한국카지노협회

- 또한 기타지출 및 미확인 항목은 초과 공급에 의한 지출 미확인뿐만 아니라 공급 항목에는 존재하지만 실태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국제회의업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상에서 관광산업의 공급부문으로 명확하게 그 공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항목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지출에 명확하게 분배가 어려움.
- ‘지출=공급’의 성립을 위해 해당 항목을 관광산업 총지출에 포함하여 총지출과 총공급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음.
- 이는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확대 등 통계 상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임.

□ 관광산업 총생산

- 쇼핑업은 관광쇼핑업과 비관광쇼핑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구체적인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면세점 매출액 자료를 통해 공급규모를 파악하였음.
- 쇼핑활동은 공급자 측면에서 관광객과 비관광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백화점, 일반 소매업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출국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좁은 의미의 관광쇼핑업으로 정의하고 내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을 관광쇼핑업의 공급량으로 추정하였음.
- 2015년 기준 내국인의 면세점 매출액은 2조 5,887억 원이며, 외국인의 면세점 매출액은 6조 1,994억 원¹⁰⁾으로 총 관광쇼핑업 공급규모는 8조 7,881억 원으로 나타남.
- 비 관광쇼핑업은 ‘지출=공급’이라는 가정에 따라 관광산업 총지출 중 쇼핑비 지출 15조 9,293억 원에서 관광쇼핑업 8조 7,881억 원을 제외한

10) 2015년 평균환율 1,147원 적용

7조 1,412억 원으로 백화점 및 일반 소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또한, 기초통계조사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출 항목과의 일치를 위해 조사 대상을 세부 업종에 따라 지출항목에 맞추어 재조정함.
 - 숙박업은 관광숙박법의 객실 매출액뿐만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전문 및 종합 휴양업, 일반 및 자동차 야영장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인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였음.
 -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숙박비 지출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인 호텔 또는 콘도미니엄업뿐만 아니라 모텔, 펜션, 캠핑장, 민박 등에 대한 지출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임.

<표 Ⅲ-11> 항목별 추정 방법

관광산업 총지출						관광산업 총생산		
세부항목	국민국내 관광지출	국민해외관광 국내지출	외래객 국내 관광지출	기타지출 및 미확인	합계	업종	구분	금액
쇼핑비	a1	b1	c1	-	h1	쇼핑업	관광쇼핑업	s1
							비관광쇼핑업	j1=h1-s1
숙박비	a2	-	c2	-	h2	숙박업	기초통계조사	s2
							조사 외	j2=h2-s2
여행사 지불	a3	b2	c3	d1=s3- (a3+b2+c3)	h3	여행업	기초통계조사	s3
문화/오락/스포츠 관련 지출	a4	-	c4	d2=s4- (a4+c4)	h4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업	기초통계조사	s4
교통비	a5	b3	c5	-	h5	운송업	기초통계조사	s5
							조사 외	j3=h5-s5
식음료비	a6		c6	-	h6	음식점 및 주점업	기초통계조사	s6
							조사 외	j4=h6-s6
기타	-	-	-	s7	h7	기타	기초통계조사	s7
의료관광서비스	-	-	s8	-	h8	의료관광서비스	총진료비	s8
국제회의업	-	-	-	s9	h9	국제회의업	기초통계조사	s9
실태조사 합계	$A = \sum a_i$ (i=1,2..6)	-	$C = \sum c_i + s8$ (i=1,2..6)	-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합계	$S = \sum s_i$ (i=2,3,...9)	
지출합계		$B = \sum b_i$ (i=1,2,3)		$D = d1+d2$ $+s7+s9$	-	기초통계조사 외	$J = s1 + \sum j_i$ (i=1,2,3,4)	
총계	A+B+C+D					총계	S+J	

(5) 한계점

- 본 연구의 관광산업 총량추정 방법은 ‘지출=공급’이라는 가정 하에 각 부문의 기존 조사·통계를 종합하였기에 크게 자료상의 한계점과 자료를 생성하는 조사 상의 한계점이 있음.
- 우선 자료상의 한계점으로는 세부 통계자료 미비에 따른 미확인과 기존의 개별적인 통계 자료를 취합하여 사용하였기에 항목 간의 자료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관광산업의 총생산 중 관광쇼핑업은 사전 면세점 및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매출액을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후면세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부문이 미반영
 - 또한, 관광산업 수요측면의 기타지출 항목으로 분류된 국제회의업의 매출액에는 숙박, 교통 등에 대한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다음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통계로 활용 빈도가 높은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은 그 조사방법과 범위에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6천여 명 대상으로 패널조사(Panel survey)를 실시함에 따라 고정된 조사 대상과 적은 표본 수로 인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 결여가 우려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전세버스, 렌터카, 의료관광 등 주요 대상이 누락되어 있고, 조사 결과 역시 내·외국인의 실태조사 결과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관광사업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IV.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1. 분석방법

(1) 산업연관분석 개요¹¹⁾

-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분석도구임.
 -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 분석,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효과 측정, 각종 가격변수의 파급효과분석 등 각종 경제구조 분석과 정책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각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에 의해 자신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부가가치, 정부조세수입, 수입(import) 등의 유발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
 - 반면에 투입과 산출의 선형 관계를 가정한 정태적 모형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이거나 동태적인 경제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아래 <그림 IV-1>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상품(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처분내역을 한 장의 표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토대로 함.
 - 가로(행, row)방향은 각 산업(또는 상품)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의 형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

11)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한국은행(2014)을 참고

- 세로(열, column)방향은 각 산업(또는 상품)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

<그림 IV-1> 투입산출표의 기본 구조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수 입 (공 제)	총 산 출 액	
		1	2	...	j	...				n
중 간 투 입	1	x_{11}	x_{12}	...	x_{1j}	...	x_{1n}	Y_1	M_1	X_1
	2	x_{21}	x_{22}	...	x_{2j}	...	x_{2n}	Y_2	M_2	X_2
	⋮	⋮	⋮		⋮		⋮	⋮	⋮	⋮
	i	x_{i1}	x_{i2}	...	x_{ij}	...	x_{in}	Y_i	M_i	X_i
	⋮	⋮	⋮		⋮		⋮	⋮	⋮	⋮
	n	x_{n1}	x_{n2}	...	x_{nj}	...	x_{nn}	Y_n	M_n	X_n
부 가 가 치		V_1	V_2	...	V_j	...	V_n			
총 투 입 액		X_1	X_2	...	X_j	...	X_n			

주: x 는 중간투입액, X 는 총산출액 벡터, Y 는 최종수요 벡터, M 은 수입액 벡터, V 는 부가가치 벡터

□ 유발효과

○ 분석 목적에 따라 투입산출표의 상품부문을 재구성하여 그 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

- 어떤 상품부문이 1단위의 생산물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투입량(a_{ij})이며, x_{ij} 를 j 부문의 생산에 필요한 i 부문의 투입량, X_j 를 j 부문의 총투입액(=총산출액)이라 하면, 투입계수 $a_{ij} = x_{ij}/X_j$

- 최종수요 벡터 Y 와 총산출(=총투입) 벡터 X 의 관계를 투입계수 행렬 A 를 통해 함께 표현하면 $AX + Y = X$ 이고, 이를 X 에 대하여 정리하면 $X = (I - A)^{-1}Y$

- 여기서 $(I - A)^{-1}$ 을 레온티에프 역행렬(L)이라 하며, 그 원소 l_{ij} 는 j 부문

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i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총산출액, 즉 생산유발계수임.

-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를 토대로 각 상품부문 생산물의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유발계수를 산출할 수 있음.

<표 IV-1> 각종 유발계수의 개념 및 행렬식

구분	개념	행렬식
생산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단위	$(I - A^d)^{-1}$ (A^d :국산투입계수행렬, I : 항등행렬)
수입 유발계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 단위	$A^m(I - A^d)^{-1}$ (A^m :수입투입계수행렬)
부가가치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widehat{A}^v(I - A^d)^{-1}$ (\widehat{A}^v :부가가치율의 대각 행렬)
소득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보수 단위	$\widehat{A}^{li}(I - A^d)^{-1}$ (\widehat{A}^{li} :피용자보수율의 대 각행렬)
노동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고용자 수 및 취업자 수)	$\widehat{l}(I - A^d)^{-1}$ (\widehat{l} :노동계수 대각행렬)

출처: 한국은행(2016)을 바탕으로 정리함.

주: 고용자는 순수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전후방연쇄효과

-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측정

-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

(2) 분석방법 및 자료

□ 부문연계

- 본고의 새로운 관광산업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투입산출표의 상품부문을 재분류
 - 투입산출표상 관광 부문의 ‘쇼핑’은 소매서비스(303)와 연계시키고, ‘음식점’은 일반음식점(318), 주점(319), 기타 음식점(320), ‘숙박업’은 숙박(321), ‘운송’은 철도여객운송(304), 도로여객운송(306),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09), 외항운송(310), 항공운송(311), 육상운송보조서비스(312), 수상운송보조서비스(313), 항공운송보조서비스(314), 의료는 의료 및 보건(365, 366, 367), ‘문화·스포츠·오락’은 문화서비스(371),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372), 기타 문화서비스(373), 스포츠서비스(374), 오락서비스(375), ‘여행업’, ‘국제회의업’, ‘기타’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359)로 연계

<표 IV-2> 투입산출표상 관광산업 세분류 및 상품구성

상품부문 명칭	투입산출표 기본부문 통합방식		비고
쇼핑	303	소매서비스	관광객의 기념품 및 일반 제품 구매
운송	304	철도여객운송	육상운송, 내항운송, 외항운송, 주차장, 유료도로 통행료 등
	306	도로여객운송	
	30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10	외항운송	
	311	항공운송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음식점	318	일반음식점	음식점, 주점 등
	319	주점	
	320	기타음식점	
숙박	321	숙박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여관업
의료	365	의료 및 보건(국공립)	병원, 의원
	366	의료 및 보건(비영리)	
	367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스포츠 및 오락	371	문화서비스(국공립)	문화·예술·공연(영화, 공연, 박물관, 연극, 음악)
	372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373	기타 문화서비스	
	374	스포츠서비스	경기장운영, 스포츠서비스, 골프장/스키장
	375	오락서비스	게임장, 갬블링 등
기타 관광서비스	359	기타 사업서비스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표 IV-3> 투입산출표상 전산업 재분류 및 상품구성

산업부문 명칭		상품분류(기본부문)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1-25
	2. 광산물	26-34
	3. 음식료품	35-61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62-82
	5. 목재 및 종이, 인쇄	83-98
	6. 석탄 및 석유제품	99-110
	7. 화학제품	111-139
	8. 비금속광물제품	140-156
	9. 1차 금속제품	157-177
	10. 금속제품	178-191
	11. 기계 및 장비	192-213
	12. 전기 및 전자기기	214-242
	13. 정밀기기	243-248
	14. 운송장비	249-262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입가공	263-27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74-286
	17. 건설	287-301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302
	19. 화물운송 및 보관	305, 307-308, 315-317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22-334
	21. 금융 및 보험	335-340
	22. 부동산 및 임대	341-345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46-356
	24. 사업지원서비스	357-358
	25. 공공행정 및 국방	360-361
	26. 교육서비스	362-364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368-370, 376-384	
관광 산업	28. 쇼핑	303
	29. 운송	304, 306, 309-314
	30. 음식점	318-320
	31. 숙박	321
	32. 의료	365-367
	33. 문화스포츠오락	371-375
	34. 기타 관광서비스	359

주: 2010 기준년 상품분류(한국은행, 2016)를 기준으로 관광산업과 연계

□ 분석절차

- 2011~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의한 관광산업의 현황을 산업구조, 투입구조,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2014년도 기준 산업연관분석을 실행하여 경제효과 산출함.
 - 산업연관분석은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하고,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유발효과 및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유발효과를 금액으로 산출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표 IV-4>의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액을 최종수요로 놓고 타 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 벡터를 곱하여 계산
 -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 등도 같은 방식으로 관련된 유발계수행렬을 적용하여 각각의 파급효과를 계산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앞서 제시한 관광산업의 구성 항목을 내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로 단순화 하여 분석하였음.
 - 3장에서 관광산업 총량 추정 시 ‘국민 국내관광 지출’, ‘국민 해외관광 국내 지출’, ‘방한 외래객 국내관광 지출’ 및 ‘기타 지출 및 미확인’으로 구성
 - ‘국민 국내관광 지출’ 과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 의 합을 내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로 정의하며, 방한 외래객 국내관광 지출’ 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로 정의함.
 - ‘기타지출 및 미확인’ 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미확인분이 발생한 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의 내·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분배하였음.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지출의 경우 ‘기타지출 및 미확인’ 금액의 분배로 인해 2014년 일반여행수입 18조 9,693억 원(177억 1,200만 달러, 연 평균 환율 1,071원 적용)에 비해 약 3.8조 원 증가하였음.

<표 IV-4> 2014년 관광지출액

단위: 억 원

관광산업 부문명(코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쇼핑(28)	46,123	104,683	150,806
운송(29)	217,381	6,509	223,890
음식점 및 주점(30)	95,159	25,272	120,431
숙박(31)	39,505	43,318	82,823
의료(32)	0	5,569	5,569
문화, 스포츠 및 오락(33)	37,321	6,380	43,701
기타 관광(34)	75,228	35,924	111,152
합계	510,717	227,655	738,372

□ 분석자료

○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은 비경쟁수입형 국산거래표(기초가격)를 이용하는 $(I-A^d)^{-1}$ 형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함.

-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비율이 각 수요부문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국내생산과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I-A^d)^{-1}$ 형 생산유발계수표가 적합
- 2010년 기준년 상품분류는 384개 기본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표는 161개 통합소분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일부 추정이 필요함.
- 161부문 고용표와 384부문 산업연관표의 매칭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료분리가 가능한 상품부문은 세분류하고, 분리가 어려울 경우 각 부문의 총산출 비중이나 『전국사업체조사』의 세부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통해 간접 추정함.

2.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1) 산업구조

- 관광 관련 품목의 산출액은 2014년 약 424.3조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여 2011년 대비 0.5%p 증가하였고, 동년 대비 산출액 증가율은 1.10배로 나타남(<표 IV-5> 참조).

 - 이 가운데 실제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액은 2014년 73.8조원으로 전체 산출액의 2.0% 수준이며, 이는 2011년 대비 0.3%p 증가한 것임.

- 관광 관련 품목의 부가가치액은 2014년 195.5조원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여 2011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동년 대비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1.14배로 나타남(<표 IV-6> 참조).

 - 이 가운데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액의 부가가치액은 <표 IV-7>의 관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해 간접 추산할 경우 2014년 약 34조원 수준으로 전체의 2.5%를 차지

<표 IV-5> 품목별 산출액 구성

단위: 조원, %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변화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54.9	1.6	56.5	1.6	56.4	1.6	57.0	1.6	1.04
광산품	3.8	0.1	3.8	0.1	4.3	0.1	4.4	0.1	1.15
제조업	1,818.3	52.2	1,835.6	51.3	1,800.3	50.0	1,797.8	49.1	0.99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102.9	3.0	116.3	3.2	123.3	3.4	126.5	3.5	1.23
건설	181.5	5.2	181.1	5.1	190.6	5.3	193.8	5.3	1.07
서비스업(관광 제외)	937.2	26.9	981.0	27.4	1,017.5	28.3	1,054.2	28.8	1.12
관광 관련 산업	385.3	11.1	405.6	11.3	407.1	11.3	424.3	11.6	1.10
쇼핑	94.2	2.7	97.7	2.7	93.6	2.6	97.1	2.7	1.03
운송	80.3	2.3	85.2	2.4	81.5	2.3	81.9	2.2	1.02
음식점	81.2	2.3	85.6	2.4	89.1	2.5	93.1	2.5	1.15
숙박	6.4	0.2	6.6	0.2	7.3	0.2	7.6	0.2	1.19
의료	75.2	2.2	79.9	2.2	84.1	2.3	90.0	2.5	1.20
문화스포츠오락	27.9	0.8	29.6	0.8	29.9	0.8	31.2	0.9	1.12
기타관광서비스	20.1	0.6	21.1	0.6	21.7	0.6	23.4	0.6	1.16
전체 합계	3,483.9	100	3,579.8	100	3,599.4	100	3,658.0	100	1.05
관광지출액	60.5	1.7	69.5	1.9	72.5	2.0	73.8	2.0	1.22

<표 IV-6> 품목별 부가가치액 구성

단위: 조원, %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변화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30.4	2.5	30.7	2.5	30.4	2.3	31.5	2.3	1.04
광산품	2.2	0.2	2.2	0.2	2.4	0.2	2.5	0.2	1.13
제조업	370.2	30.6	377.6	30.2	391.9	30.1	399.4	29.5	1.08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24.7	2.0	27.1	2.2	31.1	2.4	38.3	2.8	1.55
건설	58.0	4.8	59.5	4.8	63.8	4.9	66.9	4.9	1.15
서비스업(관광 제외)	552.7	45.7	574.7	45.9	599.0	46.0	620.8	45.8	1.12
관광 관련 품목	171.8	14.2	179.6	14.4	184.6	14.2	195.5	14.4	1.14
쇼핑	50.3	4.2	51.4	4.1	50.5	3.9	52.0	3.8	1.03
운송	24.1	2.0	24.9	2.0	26.5	2.0	28.2	2.1	1.17
음식점	27.9	2.3	30.3	2.4	31.5	2.4	33.4	2.5	1.20
숙박	3.9	0.3	4.1	0.3	4.5	0.3	4.6	0.3	1.16
의료	39.5	3.3	42.1	3.4	43.9	3.4	47.7	3.5	1.21
문화스포츠오락	14.4	1.2	15.1	1.2	15.1	1.2	16.0	1.2	1.11
기타관광서비스	11.6	1.0	11.7	0.9	12.6	1.0	13.7	1.0	1.18
전체 합계	1,210.0	100	1,251.5	100	1,303.2	100	1,354.9	100	1.12
관광지출 부가가치액	26.98	2.2	30.79	2.5	32.90	2.5	34.02	2.5	1.13

(2) 투입구조

- 관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총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2014년 46.1%로 2011년 대비 1.5%p 증가(<표 IV-7> 참조)
 - 세부품목별로는 숙박(59.7%)과 기타 관광서비스(58.6%)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고, 운송(34.4%)과 음식점(35.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 관련 산업의 중간투입률(총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액의 비율)은 2014년 53.9%로 2011년 대비 1.5%p 감소(<표 IV-8> 참조)
 - 이는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41.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조업(7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세부품목별로는 운송(65.6%)과 음식점(64.1%)의 중간투입률이 가장 높고, 숙박(40.3%)과 기타 관광서비스(41.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 관련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총 중간투입액에서 차지하는 국산중간투입액의 비율)은 2014년 81.4%로 2011년 대비 2.8%p 증가(<표 IV-9> 참조)
 - 이는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92.5%)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조업(69.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세부품목별로는 쇼핑(96.2%)과 숙박(95.3%)의 국산화율이 가장 높고, 운송(47.1%)이 가장 낮음.

- 관광 관련 산업의 수입의존도(총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중간투입액의 비율)은 2014년 10.0%로 2011년 대비 1.8%p 감소(<표 IV-10> 참조)
 - 이는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3.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조업(23.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세부품목별로는 운송(34.7%)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고, 쇼핑(1.8%)과 숙박(1.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7> 품목별 부가가치율

단위: %, %p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차이(B-A)
농림수산물	55.4	54.4	53.8	55.3	-0.1
광산품	57.3	59.4	57.0	56.4	-1.0
제조업	22.8	23.0	23.9	24.1	1.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4.0	23.3	25.2	30.3	6.3
건설	31.9	32.9	33.5	34.5	2.6
서비스업(관광 제외)	58.6	58.4	58.7	58.6	-0.1
관광 관련 산업	44.6	44.3	45.4	46.1	1.5
쇼핑	53.4	52.6	54.0	53.6	0.1
운송	30.1	29.2	32.5	34.4	4.4
음식점	34.4	35.4	35.4	35.9	1.5
숙박	61.2	62.1	61.4	59.7	-1.5
의료	52.5	52.6	52.3	53.0	0.4
문화스포츠오락	51.6	51.1	50.4	51.3	-0.3
기타 관광서비스	57.9	55.6	58.3	58.6	0.7
전체	34.7	35.0	36.2	37.0	2.3

주: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투입액 × 100

<표 IV-8> 품목별 중간투입률

단위: %, %p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차이(B-A)
농림수산물	44.6	45.6	46.2	44.7	0.1
광산품	42.7	40.6	43.0	43.6	1.0
제조업	79.6	79.4	78.2	77.8	-1.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76.0	76.7	74.8	69.7	-6.3
건설	68.1	67.1	66.5	65.5	-2.6
서비스업(관광 제외)	41.0	41.4	41.1	41.1	0.1
관광 관련 산업	55.4	55.7	54.6	53.9	-1.5
쇼핑	46.6	47.4	46.0	46.4	-0.1
운송	69.9	70.8	67.5	65.6	-4.4
음식점	65.6	64.6	64.6	64.1	-1.5
숙박	38.8	37.9	38.6	40.3	1.5
의료	47.5	47.4	47.7	47.0	-0.4
문화스포츠오락	48.4	48.9	49.6	48.7	0.3
기타 관광서비스	42.1	44.4	41.7	41.4	-0.7
전체	65.3	65.0	63.8	63.0	-2.3

주: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표 IV-9> 품목별 중간재 국산화율

단위 : %, %p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차이(B-A)
농림수산물	93.4	92.3	92.2	92.3	-1.1
광산품	98.3	98.3	98.2	98.3	0.0
제조업	67.0	66.9	68.0	69.8	2.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7.1	45.8	46.8	46.8	-0.3
건설	92.2	91.7	92.8	93.1	0.9
서비스업(관광 제외)	91.4	90.6	92.1	92.5	1.2
관광 관련 산업	78.6	78.3	80.3	81.4	2.8
쇼핑	95.3	94.7	96.0	96.2	0.9
운송	45.6	46.3	45.2	47.1	1.5
음식점	87.7	88.5	90.0	90.4	2.7
숙박	95.4	94.9	95.3	95.3	-0.1
의료	86.9	85.0	89.3	88.8	1.9
문화스포츠오락	93.7	93.3	94.2	94.3	0.6
기타 관광서비스	89.7	88.5	90.5	90.6	0.9
전체	73.2	72.9	74.4	75.9	2.7

주: 중간재 국산화율 = 국산중간투입액 / (국산중간투입액 + 수입중간투입액) × 100

<표 IV-10> 품목별 수입의존도

단위: %, %p

	2011년(A)	2012년	2013년	2014년(B)	차이(B-A)
농림수산물	2.9	3.5	3.6	3.5	0.5
광산품	0.7	0.7	0.8	0.7	0.0
제조업	26.3	26.3	25.1	23.5	-2.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0.2	41.6	39.7	37.1	-3.1
건설	5.3	5.6	4.8	4.5	-0.8
서비스업(관광 제외)	3.5	3.9	3.3	3.1	-0.5
관광 관련 품목	11.9	12.1	10.7	10.0	-1.8
쇼핑	2.2	2.5	1.8	1.8	-0.4
운송	38.1	38.0	37.0	34.7	-3.4
음식점	8.1	7.4	6.4	6.2	-1.9
숙박	1.8	1.9	1.8	1.9	0.1
의료	6.2	7.1	5.1	5.2	-1.0
문화스포츠오락	3.1	3.3	2.9	2.8	-0.3
기타 관광서비스	4.4	5.1	4.0	3.9	-0.4
전체	17.5	17.6	16.3	15.2	-2.3

주: 수입의존도 = 수입중간재투입액 / 총투입액 × 100

(3) 고용구조

- 2014년 중 관광 관련 산업의 취업자¹²⁾(전업환산, full-time equivalent 기준, 이하 같음) 수는 5,872천명으로 2011년 대비 496천명 증가(<표 IV-11> 참조)
 -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관광 관련 취업자의 비중은 2014년 25.3%로 2011년 대비 0.2%p 증가
 - 세부품목별로 보면 2014년 쇼핑(소매서비스)과 음식점의 취업자 비중이 각각 8.4% 및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중 관광 관련 산업의 피용자(임금근로자) 수는 3,704천명으로 2011년 대비 309천명 증가(<표 IV-12> 참조)
 - 전체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관광 관련 피용자의 비중은 2014년 22.0%
 - 세부품목별로는 쇼핑의 피용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1,174천명으로 가장 많음.
- 관광 관련 산업의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10억 원)는 2014년 기준 산출액 10억 원 당 14.1명으로 나머지 서비스업(10.1명) 및 제조업(2.1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V-13> 참조).
 - 고용계수(=피용자수/산출액×10억 원)도 산출액 10억 원 당 8.7명으로 나머지 서비스업(7.9명) 및 제조업(1.8명)에 비해 높음.
 - 세부품목별로는 쇼핑의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가 각각 20.4명/10억 원 및 12.1명/10억 원으로 일자리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도 취업계수(17.4명/10억 원)는 매우 높지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12) 취업자 = 피용자(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표 IV-11> 품목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p

	2011년 (A)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B) (비중)	차이 (B-A) (비중)
농림수산물	1,514 (7.1)	1,492	1,484	1,479 (6.4)	-35 (-0.7)
광산품	18 (0.1)	14	13	14 (0.1)	-4 (0.0)
제조업	3,485 (16.3)	3,553	3,560	3,636 (15.7)	151 (-0.6)
음식료품	332 (1.5)	321	325	306 (1.3)	-26 (-0.2)
섬유 및 가죽제품	363 (1.7)	366	363	340 (1.5)	-23 (-0.2)
목재 및 종이, 인쇄	170 (0.8)	177	178	185 (0.8)	14 (0.0)
석탄 및 석유제품	17 (0.1)	15	10	11 (0.0)	-5 (0.0)
화학제품	359 (1.7)	356	338	355 (1.5)	-4 (-0.1)
비금속광물제품	90 (0.4)	89	93	92 (0.4)	2 (0.0)
1차 금속제품	152 (0.7)	162	161	171 (0.7)	19 (0.0)
금속제품	241 (1.1)	254	244	241 (1.0)	0 (-0.1)
기계 및 장비	345 (1.6)	356	365	371 (1.6)	25 (0.0)
전기 및 전자기기	528 (2.5)	530	539	552 (2.4)	24 (-0.1)
정밀기기	80 (0.4)	91	93	95 (0.4)	15 (0.0)
운송장비	419 (2.0)	433	461	492 (2.1)	73 (0.2)
기타제조업제품및입가공	389 (1.8)	402	391	425 (1.8)	35 (0.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95 (0.9)	210	211	177 (0.8)	-18 (-0.1)
건설	1,455 (6.8)	1,479	1,586	1,533 (6.6)	78 (-0.2)
서비스업(관광 제외)	9,377 (43.8)	9,809	10,253	10,459 (45.1)	1,081 (1.4)
도매서비스	1,183 (5.5)	1,212	1,229	1,231 (5.3)	48 (-0.2)
화물운송 및 보관	532 (2.5)	556	604	677 (2.9)	145 (0.4)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619 (2.9)	656	653	641 (2.8)	22 (-0.1)
금융 및 보험	730 (3.4)	750	741	753 (3.2)	23 (-0.2)
부동산 및 임대	523 (2.4)	532	571	575 (2.5)	52 (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39 (5.3)	1,259	1,361	1,346 (5.8)	207 (0.5)
사업지원서비스	611 (2.9)	679	731	769 (3.3)	158 (0.5)
공공행정 및 국방	904 (4.2)	921	929	974 (4.2)	70 (0.0)
교육서비스	1,532 (7.2)	1,485	1,541	1,518 (6.6)	-14 (-0.6)
사회복지및기타서비스	1,604 (7.5)	1,759	1,893	1,975 (8.5)	370 (1.0)
관광 관련 산업	5,376 (25.1)	5,674	5,883	5,872 (25.3)	496 (0.2)
쇼핑	1,929 (9.0)	2,009	2,045	1,949 (8.4)	20 (-0.6)
운송	712 (3.3)	737	749	807 (3.5)	95 (0.2)
음식점	1,399 (6.5)	1,487	1,590	1,549 (6.7)	150 (0.2)
숙박	79 (0.4)	83	71	93 (0.4)	14 (0.0)
의료	638 (3.0)	679	737	788 (3.4)	150 (0.4)
문화스포츠오락	334 (1.6)	367	373	343 (1.5)	9 (-0.1)
기타 관광서비스	286 (1.3)	311	319	343 (1.5)	57 (0.1)
전체	21,422 (100)	22,231	22,991	23,171 (100)	1,749 -

<표 IV-12> 품목별 피용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p

	2011년 (A)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B) (비중)	차이 (B-A) (비중)
농림수산물	124 (0.8)	110	107	106 (0.6)	-18 (-0.2)
광산품	13 (0.1)	12	13	14 (0.1)	1 (0.0)
제조업	2,974 (19.3)	3,008	3,125	3,279 (19.5)	305 (0.2)
음식료품	219 (1.4)	226	219	238 (1.4)	19 (0.0)
섬유 및 가죽제품	240 (1.6)	251	248	250 (1.5)	10 (-0.1)
목재 및 종이, 인쇄	132 (0.9)	136	148	146 (0.9)	14 (0.0)
석탄 및 석유제품	14 (0.1)	10	11	12 (0.1)	-3 (0.0)
화학제품	326 (2.1)	306	321	343 (2.0)	17 (-0.1)
비금속광물제품	76 (0.5)	77	79	75 (0.4)	0 (0.0)
1차 금속제품	146 (1.0)	145	157	158 (0.9)	11 (0.0)
금속제품	212 (1.4)	202	199	209 (1.2)	-3 (-0.1)
기계 및 장비	306 (2.0)	314	321	357 (2.1)	51 (0.1)
전기 및 전자기기	487 (3.2)	497	516	556 (3.3)	69 (0.1)
정밀기기	84 (0.5)	88	86	84 (0.5)	0 (0.0)
운송장비	415 (2.7)	439	469	472 (2.8)	57 (0.1)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317 (2.1)	318	352	380 (2.3)	63 (0.2)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68 (1.1)	169	161	171 (1.0)	3 (-0.1)
건설	1,078 (7.0)	1,144	1,118	1,142 (6.8)	64 (-0.2)
서비스업	7,632 (49.6)	8,021	8,182	8,292 (49.3)	661 (-0.3)
도매서비스	668 (4.3)	680	710	780 (4.6)	112 (0.3)
화물운송 및 보관	300 (1.9)	321	347	366 (2.2)	66 (0.2)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586 (3.8)	592	583	591 (3.5)	5 (-0.3)
금융 및 보험	718 (4.7)	710	724	717 (4.3)	-1 (-0.4)
부동산 및 임대	321 (2.1)	363	368	384 (2.3)	62 (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26 (7.3)	1,211	1,206	1,222 (7.3)	96 (-0.1)
사업지원서비스	647 (4.2)	700	732	702 (4.2)	55 (0.0)
공공행정 및 국방	921 (6.0)	929	974	943 (5.6)	22 (-0.4)
교육서비스	1,179 (7.7)	1,223	1,175	1,216 (7.2)	37 (-0.4)
사회복지및기타서비스	1,165 (7.6)	1,291	1,362	1,372 (8.2)	207 (0.6)
관광 관련 산업	3,396 (22.1)	3,558	3,592	3,704 (22.0)	309 (0.0)
쇼핑	1,108 (7.2)	1,131	1,124	1,174 (7.0)	66 (-0.2)
운송	364 (2.4)	376	367	359 (2.1)	-4 (-0.2)
음식점	726 (4.7)	787	766	805 (4.8)	79 (0.1)
숙박	69 (0.5)	57	75	70 (0.4)	1 (0.0)
의료	636 (4.1)	695	738	790 (4.7)	154 (0.6)
문화스포츠오락	198 (1.3)	212	201	194 (1.2)	-4 (-0.1)
기타 관광서비스	295 (1.9)	301	322	312 (1.9)	18 (-0.1)
전 산업	15,384 (100)	16,022	16,299	16,815 (100)	1,430 -

<표 IV-13> 품목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단위: 명/10억 원

	취업계수				고용계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농림수산물	27.2	26.3	26.2	24.8	2.3	2.0	1.9	1.9
광산품	3.8	3.5	3.4	3.1	3.4	3.1	3.1	3.1
제조업	2.0	1.9	2.0	2.1	1.6	1.6	1.7	1.8
음식료품	3.4	3.4	3.0	3.0	2.3	2.3	2.1	2.2
섬유 및 가죽제품	5.3	4.6	4.4	4.4	3.4	3.2	3.2	3.3
목재 및 종이, 인쇄	4.7	4.9	4.9	4.8	3.5	3.7	3.9	3.7
석탄 및 석유제품	0.1	0.1	0.1	0.1	0.1	0.1	0.1	0.1
화학제품	1.4	1.3	1.3	1.4	1.3	1.1	1.2	1.3
비금속광물제품	2.5	2.6	2.5	2.5	2.1	2.1	2.2	2.0
1차 금속제품	0.6	0.7	0.8	0.8	0.6	0.6	0.7	0.8
금속제품	2.8	2.5	2.6	2.6	2.4	2.1	2.1	2.2
기계 및 장비	2.9	3.0	3.1	3.4	2.5	2.6	2.7	3.0
전기 및 전자기기	1.4	1.4	1.5	1.6	1.3	1.3	1.4	1.5
정밀기기	3.7	3.6	3.6	3.6	3.4	3.4	3.3	3.1
운송장비	1.8	1.9	2.0	2.0	1.7	1.8	1.9	1.9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7.2	7.2	7.2	7.1	5.7	5.9	6.0	6.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0	1.8	1.4	1.5	1.6	1.5	1.3	1.3
건설	8.2	8.8	8.0	8.1	5.9	6.3	5.9	5.9
서비스업	10.5	10.5	10.3	10.1	8.1	8.2	8.0	7.9
도매서비스	10.0	9.4	8.9	9.6	5.5	5.2	5.1	5.7
화물운송 및 보관	11.3	12.3	13.2	12.9	6.1	6.5	6.8	6.8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6.1	5.9	5.6	5.5	5.5	5.3	5.0	4.9
금융 및 보험	5.4	5.3	5.5	5.4	5.2	5.1	5.3	5.2
부동산 및 임대	3.8	3.9	3.7	3.7	2.3	2.5	2.4	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9	12.1	11.3	10.8	10.6	10.8	10.1	9.6
사업지원서비스	37.3	37.5	37.7	34.5	35.6	35.9	35.9	32.3
공공행정 및 국방	9.3	8.9	8.7	7.9	9.3	8.9	8.7	7.9
교육서비스	15.5	15.5	15.1	15.2	12.3	12.3	11.7	11.8
사회복지및기타서비스	28.5	28.9	28.9	27.2	18.9	19.7	20.0	19.1
관광 관련 산업	14.7	14.5	14.4	14.1	8.8	8.8	8.8	8.7
쇼핑	21.3	20.9	20.8	20.4	11.8	11.6	12.0	12.1
운송	9.2	8.8	9.9	9.5	4.5	4.4	4.5	4.4
음식점	18.3	18.6	17.4	17.4	8.9	9.2	8.6	8.6
숙박	12.9	10.7	12.7	11.9	10.8	8.6	10.2	9.2
의료	9.0	9.2	9.4	9.3	8.5	8.7	8.8	8.8
문화스포츠오락	13.2	12.6	11.5	11.2	7.1	7.2	6.7	6.2
기타 관광서비스	15.5	15.1	15.8	14.5	14.7	14.2	14.9	13.4
전 산업	6.4	6.4	6.4	6.8	4.4	4.5	4.5	4.6

3.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및 전후방연쇄효과

(1) 승수효과

- **(생산유발효과)**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관광산업의 경우 평균 1.753으로 전 산업 평균(1.87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산업의 특성을 나타냄.
 - 관광산업 가운데 음식점(2.124)과 문화스포츠오락(1.821) 순으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유발효과)**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유발되는 관광산업의 수입(import)은 평균 0.201로 전 산업 평균(0.264)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운송의 수입유발계수(0.476)가 전체 품목 가운데 5위로 가장 높고, 쇼핑(0.119)이 가장 낮음.
- **(부가가치유발효과)** 관광산업의 평균(0.772)은 전 산업 평균(0.71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보임.
 - 관광산업 분류체계 내에서는 쇼핑, 기타관광, 숙박 순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남.
- **(소득유발효과)** 관광산업의 평균(0.372)은 전 산업 평균(0.34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피용자보수) 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임.
 - 세부품목별로는 의료, 기타 관광서비스, 숙박 순으로 소득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남.
- **(취업·고용유발효과)** 최종수요 10억원 당 관광산업의 취업 및 고용 유발인원은 각각 평균적으로 18.852명, 12.395명으로 전 산업 평균(14.274명, 9.779명) 보다 크게 나타나 일자리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보임.
 - 관광산업 가운데 음식점은 취업유발효과(26.822)가 가장 큼.

<표 IV-14> 생산 및 수입 유발계수(2014년)

산업부문 명칭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순위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1.830	19	0.169	22
	2. 광산물	1.750	22	0.150	25
	3. 음식료품	2.337	4	0.294	14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2.012	13	0.416	7
	5. 목재 및 종이, 인쇄	2.099	10	0.352	10
	6. 석탄 및 석유제품	1.320	34	0.812	1
	7. 화학제품	2.102	9	0.481	4
	8. 비금속광물제품	2.151	7	0.320	12
	9. 1차 금속제품	2.431	1	0.548	2
	10. 금속제품	2.359	3	0.323	11
	11. 기계 및 장비	2.316	5	0.318	13
	12. 전기 및 전자기기	1.899	16	0.444	6
	13. 정밀기기	2.072	11	0.365	8
	14. 운송장비	2.425	2	0.356	9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040	12	0.220	17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42	28	0.488	3
	17. 건설	2.232	6	0.242	16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1.843	17	0.149	26
	19. 화물운송 및 보관	1.935	14	0.243	15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843	18	0.174	20
	21. 금융 및 보험	1.684	25	0.103	30
	22. 부동산 및 임대	1.415	30	0.057	34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658	27	0.142	27
	24. 사업지원서비스	1.394	33	0.073	33
	25. 공공행정 및 국방	1.413	31	0.078	32
	26. 교육서비스	1.410	32	0.082	31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1.927	15	0.189	19
관광 산업	28. 쇼핑	1.771	21	0.119	29
	29. 운송	1.474	29	0.476	5
	30. 음식점	2.124	8	0.200	18
	31. 숙박	1.688	24	0.153	23
	32. 의료	1.730	23	0.173	21
	33. 문화스포츠오락	1.821	20	0.152	24
	34. 기타 관광서비스	1.663	26	0.131	28
전산업 평균		1.874		0.264	
관광산업 평균		1.753		0.201	

<표 IV-15> 부가가치 및 소득 유발계수(2014년)

산업부문 명칭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순위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0.811	13	0.171	31
	2. 광산물	0.816	12	0.292	23
	3. 음식료품	0.674	22	0.249	27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0.570	28	0.274	24
	5. 목재 및 종이, 인쇄	0.639	25	0.302	21
	6. 석탄 및 석유제품	0.170	34	0.057	34
	7. 화학제품	0.510	30	0.216	28
	8. 비금속광물제품	0.659	24	0.259	25
	9. 1차 금속제품	0.448	33	0.180	30
	10. 금속제품	0.679	21	0.336	17
	11. 기계 및 장비	0.674	23	0.340	16
	12. 전기 및 전자기기	0.549	29	0.208	29
	13. 정밀기기	0.624	27	0.294	22
	14. 운송장비	0.636	26	0.318	19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767	17	0.423	10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476	32	0.143
17. 건설		0.735	19	0.449	7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0.830	9	0.365	13
	19. 화물운송 및 보관	0.691	20	0.342	15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805	14	0.385	11
	21. 금융 및 보험	0.846	7	0.383	12
	22. 부동산 및 임대	0.928	1	0.152	32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26	10	0.501	4
	24. 사업지원서비스	0.907	2	0.720	1
	25. 공공행정 및 국방	0.900	3	0.536	3
	26. 교육서비스	0.892	4	0.682	2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0.781	16	0.465	6
관광 산업	28. 쇼핑	0.864	5	0.309	20
	29. 운송	0.487	31	0.259	26
	30. 음식점	0.760	18	0.336	18
	31. 숙박	0.834	8	0.428	9
	32. 의료	0.787	15	0.481	5
	33. 문화스포츠오락	0.818	11	0.347	14
	34. 기타 관광서비스	0.853	6	0.440	8
전산업 평균		0.713		0.342	
관광산업 평균		0.772		0.372	

<표 IV-16>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2014년)

산업부문 명칭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순위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31.252	3	4.509	29
	2. 광산물	7.815	28	6.214	25
	3. 음식료품	18.018	9	7.049	21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10.719	22	7.801	19
	5. 목재 및 종이, 인쇄	11.721	19	8.325	18
	6. 석탄 및 석유제품	2.010	34	1.422	34
	7. 화학제품	6.355	29	4.748	28
	8. 비금속광물제품	8.807	24	6.423	23
	9. 1차 금속제품	4.861	32	3.801	32
	10. 금속제품	8.092	26	6.179	27
	11. 기계 및 장비	9.138	23	7.231	20
	12. 전기 및 전자기기	5.415	31	4.329	31
	13. 정밀기기	8.636	25	6.730	22
	14. 운송장비	7.930	27	6.391	24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3.137	16	10.421	1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875	33	3.171	33
	17. 건설	13.967	14	10.229	16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16.395	11	10.451	11
	19. 화물운송 및 보관	19.368	7	11.482	10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2.911	17	10.431	12
	21. 금융 및 보험	11.404	20	9.852	17
	22. 부동산 및 임대	6.265	30	4.489	30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5.679	12	12.976	6
	24. 사업지원서비스	37.409	1	34.282	1
	25. 공공행정 및 국방	11.174	21	10.235	15
	26. 교육서비스	18.217	8	13.779	5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32.765	2	22.784	2
관광 산업	28. 쇼핑	26.260	5	16.330	4
	29. 운송	12.106	18	6.212	26
	30. 음식점	26.822	4	12.830	7
	31. 숙박	15.515	13	11.860	8
	32. 의료	13.771	15	11.819	9
	33. 문화스포츠오락	17.507	10	10.393	14
	34. 기타 관광서비스	19.986	6	17.318	3
전산업 평균		14.274		9.779	
관광산업 평균		18.852		12.395	

(2) 전후방연쇄효과

- (후방연쇄효과)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 평균(0.936)은 1보다 작아 관광산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도 음식점의 영향력계수(1.134)만 1보다 크게 나타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평균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은 1보다 낮은 영향력계수를 보여 최종수요형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보임.

- (전방연쇄효과) 관광산업의 감응도계수 평균(0.745)도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됨.
 - 감응도계수는 일반적으로 각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상품일수록 크게 나타남.

 - 관광산업의 모든 세부품목들의 감응도계수는 1이하로 낮아 중간수요보다는 최종수요에 의존적임을 보였고, 그 가운데 쇼핑(소매서비스)의 감응도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IV-17> 전후방연쇄효과(2014년)

산업부문 명칭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0.976	19	0.997	15
	2. 광산물	0.934	22	0.591	32
	3. 음식료품	1.247	4	1.180	9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1.074	13	0.931	20
	5. 목재 및 종이, 인쇄	1.120	10	1.031	13
	6. 석탄 및 석유제품	0.704	34	1.385	4
	7. 화학제품	1.122	9	2.114	1
	8. 비금속광물제품	1.148	7	0.760	23
	9. 1차 금속제품	1.297	1	2.000	2
	10. 금속제품	1.259	3	1.103	10
	11. 기계 및 장비	1.236	5	0.927	21
	12. 전기 및 전자기기	1.013	16	1.294	7
	13. 정밀기기	1.106	11	0.655	27
	14. 운송장비	1.294	2	0.981	16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89	12	1.038	12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823	28	1.652	3
	17. 건설	1.191	6	0.615	28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0.984	17	1.319	6
	19. 화물운송 및 보관	1.033	14	1.096	11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983	18	1.210	8
	21. 금융 및 보험	0.899	25	1.333	5
	22. 부동산 및 임대	0.755	30	1.007	14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85	27	0.965	18
	24. 사업지원서비스	0.744	33	0.751	24
	25. 공공행정 및 국방	0.754	31	0.611	29
	26. 교육서비스	0.753	32	0.543	34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1.028	15	0.692	26
관광 산업	28. 쇼핑	0.945	21	0.977	17
	29. 운송	0.786	29	0.847	22
	30. 음식점	1.134	8	0.935	19
	31. 숙박	0.901	24	0.556	33
	32. 의료	0.923	23	0.603	31
	33. 문화스포츠오락	0.972	20	0.605	30
	34. 기타 관광서비스	0.888	26	0.695	25
전산업 평균		1.000		1.000	
관광산업 평균		0.936		0.745	

4. 내외국인 국내 관광지출의 파급효과

(1) 생산유발액

- 2014년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총 73.8조원)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126조 6,725억 원으로 분석됨(<표 IV-18> 참조).
 - 이 가운데 관광산업에서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80조 1,029억 원이며, 그 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조 5,696억 원임.
 - 생산유발액의 품목별 비중은 운송(13.2%), 쇼핑(13.2%), 음식점(10.9%), 기타 관광서비스(9.4%), 숙박(6.6%) 순으로 나타남.
- 내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이 86조 3,949억 원으로 전체 생산유발액의 68.2%를 차지한 가운데 운송과 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쇼핑과 숙박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2) 수입유발액

- 2014년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지출로 인한 수입유발액은 약 18조 3,51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77.3%는 관광 이외의 산업에서 발생(<표 IV-19> 참조).
 - 수입유발액의 품목별 비중은 광산품(25.0%), 석탄 및 석유제품(18.5%), 운송(19.5%)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수입유발액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금액 비중이 81.5%로 지배적인 가운데, 특히 광산품과 운송에서 상당한 수입이 유발됨.

(3) 부가가치유발액

- 2014년 국내 관광지출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3조 4,871억 원이며, 그 가운데 관광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의 69.0%임(<표 IV-20> 참조).

-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중이 큰 품목은 쇼핑(16.7%), 운송(15.3%), 기타 관광서비스(13.0%), 숙박(9.4%), 음식점(9.2%) 순
- 내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부가가치는 운송, 기타 관광서비스가 많은 반면에 외국인 관광지출의 경우 쇼핑과 운송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유발됨.

(4) 소득유발액

- 국내 관광지출로 인해 유발된 근로소득(피용자보수)는 2014년 약 24조 7,274억 원이며, 관광산업에서 유발된 비중은 72.7%, 그 외 산업의 비중은 27.3%로 나타남(<표 IV-21> 참조).
- 소득유발액의 비중이 큰 품목은 운송(18.9%), 기타 관광서비스(15.1%), 쇼핑(11.5%), 숙박(11.1%), 음식점(10.9%) 순
- 관광지출로 인해 유발된 부가가치는 내국인의 경우 운송, 외국인의 경우 쇼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5) 취업·고용유발인원

- 2014년 국내 관광지출로 인한 취업유발인원(전업환산 기준)은 약 142만 4,891명, 고용유발인원은 약 88만 2,593명으로 나타남(<표 IV-22> 및 <표 IV-23> 참조).
- 세부품목별로 보면, 쇼핑에서 가장 많은 약 34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약 20만 명은 임금근로자에 해당
-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로 인해 쇼핑에서 가장 많은 취업유발인원(22만 3,630명)이 발생하였고, 내국인 관광지출로 인해 운송에서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21만 7141명)가 유발됨.
- 임금근로자 또한 외국인 관광지출로 인해 쇼핑에서 발생한 인원(13만 2,79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국내 관광지출의 생산유발액(2014년)

단위: 억 원,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17,700	5,593	23,294	1.8	
	2. 광산물	202	89	291	0.0	
	3. 음식료품	37,995	11,915	49,909	3.9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6,887	4,529	11,416	0.9	
	5. 목재 및 종이, 인쇄	8,548	6,240	14,788	1.2	
	6. 석탄 및 석유제품	36,361	7,776	44,138	3.5	
	7. 화학제품	22,362	13,166	35,528	2.8	
	8. 비금속광물제품	1,257	594	1,852	0.1	
	9. 1차 금속제품	6,229	2,738	8,967	0.7	
	10. 금속제품	5,759	2,606	8,365	0.7	
	11. 기계 및 장비	4,224	1,824	6,048	0.5	
	12. 전기 및 전자기기	11,186	5,364	16,550	1.3	
	13. 정밀기기	1,560	905	2,466	0.2	
	14. 운송장비	9,299	2,355	11,653	0.9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6,017	2,904	8,921	0.7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7,522	16,110	43,632	3.4
		17. 건설	1,633	893	2,525	0.2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17,412	6,823	24,236	1.9	
	19. 화물운송 및 보관	9,842	7,626	17,468	1.4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8,214	14,763	32,976	2.6	
	21. 금융 및 보험	20,525	11,880	32,404	2.6	
	22. 부동산 및 임대	17,978	13,048	31,025	2.4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879	6,527	15,407	1.2	
	24. 사업지원서비스	6,789	3,891	10,680	0.8	
	25. 공공행정 및 국방	2,530	1,546	4,076	0.3	
	26. 교육서비스	229	195	424	0.0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4,662	1,996	6,658	0.5	
	관광 산업	28. 쇼핑	57,385	109,820	167,205	13.2
29. 운송		227,898	10,264	238,162	18.8	
30. 음식점		105,762	31,920	137,682	10.9	
31. 숙박		40,131	43,651	83,782	6.6	
32. 의료		1,790	6,879	8,669	0.7	
33. 문화스포츠오락		39,518	7,441	46,959	3.7	
34. 기타 관광서비스		79,662	38,908	118,571	9.4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552,146	248,882	801,029	63.2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311,803	153,894	465,696	36.8	
총 효과 (A+B)		863,949	402,776	1,266,725	100.0	
비중		68.2	31.8	100.0	-	
전산업 산출액 대비		2.4	1.1	3.5		

<표 IV-19> 국내 관광지출의 수입유발액(2014년)

단위: 억 원,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3,206	1,116	4,322	2.4	
	2. 광산물	34,998	10,838	45,836	25.0	
	3. 음식료품	6,779	2,120	8,898	4.8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1,542	983	2,525	1.4	
	5. 목재 및 종이, 인쇄	1,512	927	2,439	1.3	
	6. 석탄 및 석유제품	29,984	3,935	33,919	18.5	
	7. 화학제품	4,909	2,716	7,624	4.2	
	8. 비금속광물제품	415	188	603	0.3	
	9. 1차 금속제품	1,721	707	2,428	1.3	
	10. 금속제품	603	205	808	0.4	
	11. 기계 및 장비	1,115	390	1,505	0.8	
	12. 전기 및 전자기기	3,111	1,606	4,717	2.6	
	13. 정밀기기	577	318	894	0.5	
	14. 운송장비	5,404	335	5,739	3.1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173	426	1,599	0.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6	3	9	0.0
		17. 건설	1	0	1	0.0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147	77	225	0.1	
	19. 화물운송 및 보관	1,063	451	1,514	0.8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774	449	1,223	0.7	
	21. 금융 및 보험	419	247	666	0.4	
	22. 부동산 및 임대	8,299	557	8,857	4.8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486	1,235	3,721	2.0	
	24. 사업지원서비스	507	227	734	0.4	
	25. 공공행정 및 국방	987	52	1,039	0.6	
	26. 교육서비스	2	2	4	0.0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56	24	80	0.0	
	관광 산업	28. 쇼핑	-	-	-	0.0
29. 운송		34,115	1,653	35,768	19.5	
30. 음식점		322	57	379	0.2	
31. 숙박		344	60	405	0.2	
32. 의료		3	2	4	0.0	
33. 문화스포츠오락		89	30	120	0.1	
	34. 기타 관광서비스	2,975	1,930	4,905	2.7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37,849	3,732	41,581	22.7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111,797	30,132	141,929	77.3	
총 효과 (A+B)		149,645	33,864	183,510	100.0	
	비중	81.5	18.5	100.0	-	
	전산업 수입액 대비	2.2	0.5	2.7		

<표 IV-20> 국내 관광지출의 부가가치유발액(2014년)

단위: 억 원,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9,783	3,092	12,875	2.4	
	2. 광산물	114	50	164	0.0	
	3. 음식료품	6,035	1,893	7,928	1.5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1,608	1,058	2,666	0.5	
	5. 목재 및 종이, 인쇄	2,315	1,690	4,005	0.7	
	6. 석탄 및 석유제품	2,361	505	2,867	0.5	
	7. 화학제품	4,423	2,604	7,027	1.3	
	8. 비금속광물제품	348	165	513	0.1	
	9. 1차 금속제품	856	376	1,233	0.2	
	10. 금속제품	1,751	793	2,544	0.5	
	11. 기계 및 장비	1,200	518	1,719	0.3	
	12. 전기 및 전자기기	3,061	1,468	4,529	0.8	
	13. 정밀기기	447	259	707	0.1	
	14. 운송장비	2,078	526	2,604	0.5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548	1,229	3,777	0.7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8,334	4,878	13,212	2.5
		17. 건설	563	308	871	0.2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8,466	3,318	11,784	2.2	
	19. 화물운송 및 보관	3,722	2,884	6,605	1.2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7,975	6,464	14,438	2.7	
	21. 금융 및 보험	10,912	6,316	17,228	3.2	
	22. 부동산 및 임대	13,397	9,723	23,120	4.3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060	3,719	8,779	1.6	
	24. 사업지원서비스	5,183	2,970	8,153	1.5	
	25. 공공행정 및 국방	1,871	1,143	3,014	0.6	
	26. 교육서비스	170	144	314	0.1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2,177	932	3,109	0.6	
	관광 산업	28. 쇼핑	30,742	58,832	89,574	16.7
29. 운송		78,437	3,532	81,969	15.3	
30. 음식점		37,930	11,447	49,377	9.2	
31. 숙박		23,972	26,074	50,046	9.4	
32. 의료		948	3,643	4,591	0.9	
33. 문화스포츠오락		20,273	3,817	24,090	4.5	
34. 기타 관광서비스		46,654	22,787	69,440	13.0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238,955	130,133	369,088	69.0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106,759	59,024	165,783	31.0	
총 효과 (A+B)		345,714	189,158	534,871	100.0	
비중		64.6	35.4	100.0	-	
전산업 부가가치액 대비		2.6	1.4	3.9		

<표 IV-21> 국내 관광지출의 소득유발액(2014년)

단위: 억 원,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1,327	419	1,747	0.7	
	2. 광산물	37	16	53	0.0	
	3. 음식료품	2,988	937	3,924	1.6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815	536	1,351	0.5	
	5. 목재 및 종이, 인쇄	1,168	852	2,020	0.8	
	6. 석탄 및 석유제품	348	75	423	0.2	
	7. 화학제품	1,801	1,060	2,862	1.2	
	8. 비금속광물제품	119	56	175	0.1	
	9. 1차 금속제품	319	140	459	0.2	
	10. 금속제품	957	433	1,390	0.6	
	11. 기계 및 장비	670	289	959	0.4	
	12. 전기 및 전자기기	1,039	498	1,537	0.6	
	13. 정밀기기	228	132	361	0.1	
	14. 운송장비	1,129	286	1,415	0.6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565	755	2,321	0.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054	1,202	3,256	1.3
		17. 건설	442	242	684	0.3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3,641	1,427	5,068	2.0	
	19. 화물운송 및 보관	1,908	1,478	3,386	1.4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903	3,164	7,067	2.9	
	21. 금융 및 보험	4,748	2,748	7,495	3.0	
	22. 부동산 및 임대	1,293	938	2,232	0.9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429	2,520	5,949	2.4	
	24. 사업지원서비스	4,438	2,543	6,981	2.8	
	25. 공공행정 및 국방	1,162	710	1,872	0.8	
	26. 교육서비스	141	120	261	0.1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1,541	660	2,201	0.9	
	관광 산업	28. 쇼핑	9,727	18,615	28,342	11.5
29. 운송		44,616	2,009	46,626	18.9	
30. 음식점		20,654	6,234	26,888	10.9	
31. 숙박		13,123	14,274	27,397	11.1	
32. 의료		674	2,592	3,267	1.3	
33. 문화스포츠오락		8,328	1,568	9,897	4.0	
34. 기타 관광서비스		25,135	12,277	37,412	15.1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122,259	57,569	179,828	72.7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43,208	24,238	67,446	27.3	
총 효과 (A+B)		165,467	81,807	247,274	100.0	
비중		66.9	33.1	100.0	-	
전산업 피용자보수 대비		2.5	1.2	3.7		

<표 IV-22> 국내 관광지출의 취업유발인원(2014년)

단위: 명,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업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43,978	13,897	57,875	4.1
	2. 광산물	64	28	91	0.0
	3. 음식료품	11,388	3,571	14,959	1.0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3,051	2,006	5,057	0.4
	5. 목재 및 종이, 인쇄	4,131	3,016	7,147	0.5
	6. 석탄 및 석유제품	300	64	364	0.0
	7. 화학제품	3,127	1,841	4,967	0.3
	8. 비금속광물제품	313	148	461	0.0
	9. 1차 금속제품	520	228	748	0.1
	10. 금속제품	1,486	673	2,159	0.2
	11. 기계 및 장비	1,424	615	2,039	0.1
	12. 전기 및 전자기기	1,814	870	2,685	0.2
	13. 정밀기기	562	326	889	0.1
	14. 운송장비	1,830	463	2,293	0.2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4,262	2,057	6,319	0.4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124	2,414	6,538	0.5
	17. 건설	1,328	726	2,054	0.1
서비스업	18. 도매서비스	16,641	6,521	23,162	1.6
	19. 화물운송 및 보관	12,687	9,829	22,516	1.6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093	8,181	18,273	1.3
	21. 금융 및 보험	11,051	6,396	17,447	1.2
	22. 부동산 및 임대	6,569	4,768	11,337	0.8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619	7,071	16,690	1.2
	24. 사업지원서비스	23,391	13,406	36,797	2.6
	25. 공공행정 및 국방	1,990	1,216	3,206	0.2
	26. 교육서비스	348	296	644	0.0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12,691	5,433	18,124	1.3
관광 산업	28. 쇼핑	116,855	223,630	340,485	23.9
	29. 운송	217,141	9,779	226,920	15.9
	30. 음식점	184,422	55,660	240,081	16.8
	31. 숙박	47,920	52,123	100,043	7.0
	32. 의료	1,668	6,412	8,081	0.6
	33. 문화스포츠오락	44,187	8,320	52,506	3.7
	34. 기타 관광서비스	115,515	56,420	171,934	12.1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727,707	412,344	1,140,051	80.0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188,780	96,060	284,839	20.0
총 효과 (A+B)		916,487	508,403	1,424,891	100.0
	비중	64.3	35.7	100.0	-
	전산업 취업자 대비	3.9	2.2	6.0	

<표 IV-23> 국내 관광지출의 고용유발인원(2014년)

단위: 명, %

산업부문 명칭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비중		
농림수산 및 광산업	1. 농림수산물	3,292	1,040	4,332	0.5	
	2. 광산물	63	27	90	0.0	
	3. 음식료품	8,334	2,613	10,947	1.2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2,305	1,516	3,820	0.4	
	5. 목재 및 종이, 인쇄	3,170	2,314	5,485	0.6	
	6. 석탄 및 석유제품	287	61	349	0.0	
	7. 화학제품	2,861	1,684	4,545	0.5	
	8. 비금속광물제품	255	121	375	0.0	
	9. 1차 금속제품	482	212	693	0.1	
	10. 금속제품	1,240	561	1,801	0.2	
	11. 기계 및 장비	1,257	543	1,799	0.2	
	12. 전기 및 전자기기	1,714	822	2,536	0.3	
	13. 정밀기기	481	279	761	0.1	
	14. 운송장비	1,753	444	2,197	0.2	
	15. 기타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3,622	1,748	5,369	0.6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714	2,174	5,889	0.7
		17. 건설	963	526	1,489	0.2
18. 도매서비스		9,881	3,872	13,754	1.6	
서비스업	19. 화물운송 및 보관	6,695	5,187	11,882	1.3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9,006	7,300	16,306	1.8	
	21. 금융 및 보험	10,606	6,139	16,745	1.9	
	22. 부동산 및 임대	4,289	3,113	7,401	0.8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542	6,279	14,822	1.7	
	24. 사업지원서비스	21,911	12,558	34,468	3.9	
	25. 공공행정 및 국방	1,990	1,216	3,206	0.4	
	26. 교육서비스	269	229	499	0.1	
	27. 사회복지 및 기타서비스	8,907	3,813	12,720	1.4	
	관광 산업	28. 쇼핑	69,391	132,796	202,186	22.9
		29. 운송	99,955	4,502	104,456	11.8
		30. 음식점	91,471	27,606	119,077	13.5
		31. 숙박	36,960	40,201	77,161	8.7
		32. 의료	1,570	6,034	7,604	0.9
33. 문화스포츠오락		24,536	4,620	29,156	3.3	
34. 기타 관광서비스		106,604	52,067	158,672	18.0	
관광 산업에 미치는 효과 (A)		430,486	267,827	698,313	79.1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B)		117,889	66,392	184,280	20.9	
총 효과 (A+B)		548,375	334,218	882,593	100.0	
비중		62.1	37.9	100.0	0.0	
전산업 고용자 대비		3.3	2.0	5.3		

5. 소결

- 2014년 내국인 및 외국인의 관광지출액은 약 7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부가가치총액)의 약 2.5%, 관광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는 587만 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는 등 관광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업
- 내·외국인 관광지출로 인해 2014년 국내생산 126조 6,725억 원, 해외수입 18조 3,510억 원, 부가가치 53조 4,871억 원, 근로소득 24조 7,274억 원, 취업자 142만 4,891명, 임금근로자 88만 2,593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약 51.1조원 내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경제효과는 국내생산 86조 3,949억 원, 부가가치 34조 5,714억 원, 취업자 91만 6,487명 등임.
 - 2014년 약 22.7조원 외국인 관광지출로 인한 경제효과는 국내생산 40조 2,776억 원, 부가가치 18조 9,158억 원, 취업자 50만 8,403명 등임.

<표 IV-24>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2014년)

2014년	국민관광	외래관광	합계
총지출액(억 원)	510,717	227,655	738,372
생산유발액(억 원)	863,949	402,776	1,266,725
수입유발액(억 원)	149,645	33,864	183,510
부가가치유발액(억 원)	345,714	189,158	534,871
소득유발액(억 원)	165,467	81,807	247,274
취업유발인원(명)	916,487	508,403	1,424,891
고용유발인원(명)	548,375	334,218	882,593

- 관광산업은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유발효과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의 1원당 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은 1.716원으로 승용차(2.560원)와 이동전화기(1.834원)에 비해 작지만,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부가가치계수)은 0.724원으로 승용차(0.689원) 및 이동전화기(0.463원)를 상회
 -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의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취업유발계수)은 19.298명으로 승용차(8.080명) 및 이동전화기(4.974명)의 대략 2배 및 5배 수준에 육박
 - 관광산업의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고용유발계수) 또한 승용차(6.285명) 및 이동전화기(3.811)의 대략 2배 및 4배 높은 11.953명에 이름.

<표 IV-25> 주요 상품과의 유발승수 비교(2014년)

	관광산업	승용차 (기본부문 249)	이동전화기 (IO기본부문 235)
1원당 생산유발액(원)	1.716	2.560	1.834
1원당 수입유발액(원)	0.249	0.303	0.531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원)	0.724	0.689	0.463
1원당 소득유발액(원)	0.335	-	-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명)	19.298	8.080	4.974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명)	11.953	6.285	3.811

주 : 승용차와 이동전화기의 10억원당 취업 및 고용 유발인원은 각각 IO 소분류 자동차(92)와 통신 및 방송장비(87)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임.

- 2014년 내·외국인 국내 관광지출에 의해 발생한 약 127조원의 생산유발액은 2014년형 현대 쏘나타 200만대 생산 또는 삼성 갤럭시 노트4 7,216만대 생산시 발생하는 효과에 상당

<그림 IV-2> 국내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2014년)



- 2014년형 현대자동차 쏘나타 Smart 공급가는 대략 24,700,000원이고, 2014년 10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는 957,000원임을 가정한 결과임.
- 동일한 가정 하에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 쏘나타 314만대 또는 갤럭시 노트4 1억 2,061만대, 취업유발인원 기준으로 쏘나타 569만대 또는 갤럭시 노트4 2억 4,201만대 생산효과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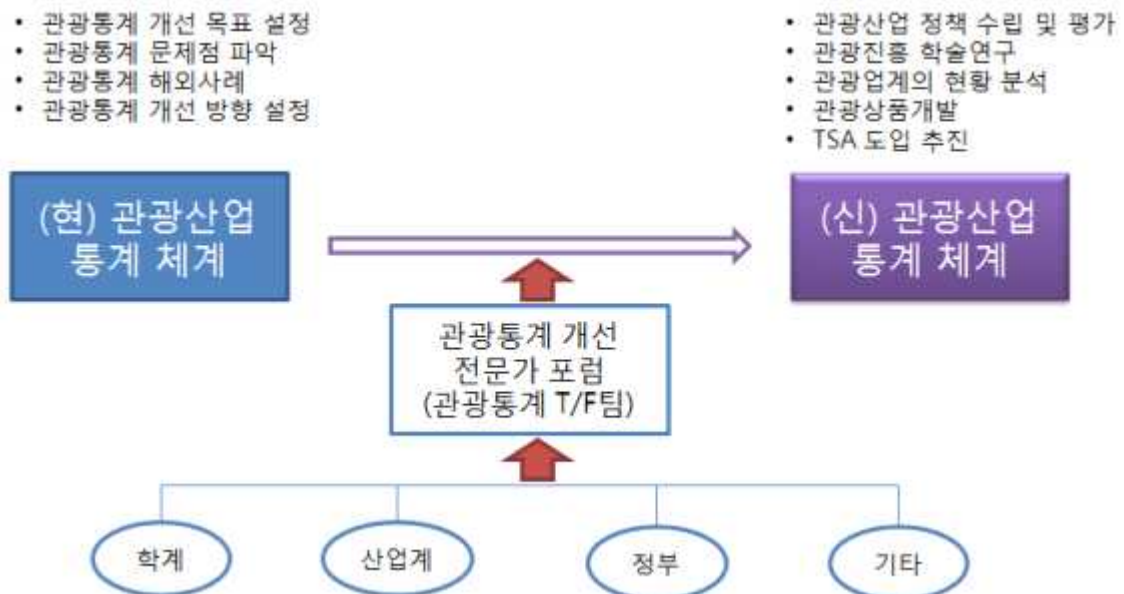
V. 정책적 시사점

1. 국가 관광통계체계의 정비

- 관광여행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영향요소이자,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고용을 창출하는 최종수요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임.
-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관광소비 지출은 소득 순환에 있어서 최종소비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
 - 국내관광(internal tourism)은 최종수요로서 내수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관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외래관광 부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
- 이처럼 관광산업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역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이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상호적인 영향이 큰 분야임.
- 이처럼 관광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위상 때문에 개도국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의 첫 출발점은 국민경제적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잘 구비된 통계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

- 잘 갖추어진 산업통계는 정책입안자, 연구자들이 그 산업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잘 이해하도록 하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함.
- 반면에,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계시스템의 부재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의 수립 및 세부 정책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각종 전략 및 정책의 수정 보완을 통한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됨.
-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통계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복잡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업정책 수행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그림 V-1> 국가 관광통계체계 정비



- 관광산업 통계생산 시스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개선대안 도출, 관광산업 관련 주체들의 통계활용 현황, 해외 관광산업통계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관광산업 통계 개선이 필요함.
- 새로운 관광산업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산업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또는 TF 팀)의 운영을 제안함.

2. 관광통계의 수집 및 분석체계 개선

-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주요 관광통계에 대한 검증체계의 도입이 시급함. 통계의 신뢰도 검증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관광통계가 가지는 원천적인 문제점(지출과 생산의 불일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계의 조사, 가공, 공표 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우리나라 관광산업 총규모 추정 및 관광산업 통계의 개선 방향, TSA 도입 등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 통계는 지출 관광통계와 생산 관광통계의 상호보완이 필수적임.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통계를 생성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물은 기초적인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따라 품질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초 통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불가피함.
- 국민 및 외래 관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조사로부터 지출 총량 및 세부 항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장기적인 조사의 반복 과정에서 설문항목의 추가, 분석 범위의 확대 등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는 통계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통계에 대한 신뢰성 등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함.
 - 예를 들면, 통계청, 기타 부처에서 발표하는 유사 항목과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필요함.
- 구체적인 예로서 패널조사의 경우 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간명하여 핵심적인 지표의 도출에 필요한 통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의 조사 및 공표 전 단계에서의 체 크리스트와 검증 절차의 도입하여,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통계의 조사방법론에 관한 신뢰도와 유의수준과는 별개의 이슈임.

○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통계표가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의 활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응답자 설문안의 개선이 필요하며, 응답 표본의 수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대안마련도 필요함.

3. 관광산업총조사의 도입

○ 현행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총조사(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의 파악)로 전환함으로써 관광위성계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광산업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업종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 전반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함.

- III장에서 제시한 관광산업 범위 개선안(<표 III-2> 참조)이 관광산업총조사 대상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 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광산업총조사는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및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학술 연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임.

- 관광지의 렌터카, 관광전세버스 등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의료관광, MICE 관광, 관광인프라(관광산업 고정자산 형성) 투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일부 관광산업 관련 업종의 경우 관광관련 매출과 비관광관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가 가능한 부문의 경우 관광산업 총조사 실시 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를 통합·확대할 수 있는 관광산업 총조사를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계작성 및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일부 정책 목적의 활용도가 높은 주요 조사지표에 대해서는 분기단위의 조사를 통하여 관광산업 경기동향지수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지원을 강화함.
- 이처럼 관광산업총조사는 그 대상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공급부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로 관광 통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관광위성계정의 도입

- 관광산업 위성계정(TSA)는 관광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가지는 통계체계의 한계의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필요한 통계콘텐츠를 명료하게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관광위성계정을 도입하고 있음.
 -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서비스산업 업종의 경우, 하위 세부업종의 합(합)이 차 상위 업종이 되지만, 관광산업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숙박, 음식점 등은 그 자체로 개별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그 중 (관광객에 의해서 소비되는) 일부만 관광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UNWTO, EU,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관광위성계정 도입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이 TSA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개발에 적극적인 개도국들도 TSA를 도입하고 있음.
- TSA의 도입은 우선 국내 관광산업 생산, 산업연관관계 등 산업적 경제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제공하므로, 산업현황파악은 물론이고 각종 관광관련 정책사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해볼 수도 있음.
- 나아가 TSA를 작성, 공표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광산업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관광산업의 위상을 비교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관광위성계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도입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 국제기구인 세계여행협회(WTTC)가 발표하는 관광산업의 국제비교 통계에서 한국 관광산업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문제도 발생함.
- 우리나라 TSA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사전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관광정책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외부 전문가그룹(관광산업 학계, 관광업계, 관광정책 실무자 그룹, 통계연구자 그룹 등)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이강욱, 2015,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동수, 2012, 「관광위성계정(TSA) 작성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영수, 2008, 「강원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이충기, 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정의선, 1995, “영동지역 관광유치산업의 구조분석”, *관광학 연구*, 제19권1호, pp 179-19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창조경제시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해외문헌

- Framework 2008 (TSA:RMF 2008). Luxembourg, Madrid.
Leiper, N.,1979, "The framework of tourism: Towards a Definition of Tourism, Tourist and the Tourism Industry", *Annals Tourism Research*, 2.
Lunderberg, D.E., M. Krishnamoorthy, and M.H. Stavenga, 1995, *Tourism Economics*, John Wiley.
McIntosh, R.W., 1977,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Grid.
OECD, 1998, A Tourism Satellite Account for OECD Countries, DSTI/DOT/TOU/STAT/(98)1.
OECD, 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s and Employment.
Smith, S.L.J., 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Statistics Canada, 2007, Canadian Tourism Satellite Account and Book.
Statistics Canada, 2009, Canadian Tourism Satellite Account, 2004.

- Statistics New Zealand, 2012, Tourism Satellite Account:2012
- Statistics New Zealand, 2014,. Tourism Satellite Account: 2014. Wellington:
Statistics New Zealand.
- UNWTO, 1999, Tourism Satellite Accounts(TSA): The Conceptual Framework,
World Tourism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 2008)
(superseding SNA 1993), New York.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10,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IRTS 2008), New York & Madrid.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 1998, Update principles for
travel and tourism national satellite accounting.